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

2021. 12.



제 출 문

충남문화재단 귀하

귀 재단에서 본 연구소에 의뢰하신
“충남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
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 송
선임연구원 박칠순
공동연구원 홍성훈
공동연구원 최용석
연구보조원 정은재
연구보조원 신현지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연구결과 요약	7
제2장 국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현황	10
1.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11
1)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11
2) 광역시도의 정책 방향	12
2.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사례	20
1) 정부부처 매개인력 양성 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
2) 광역시도 매개인력 양성 사업	36
3) 충남문화재단 매개인력 양성 사업	36
4) 특징 및 시사점	58
제3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현황	10
1.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현황	62
1) 충남권역 예술강사 활동 현황	62
2)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 현황	64
3) 문화예술교육단체(기획자, 강사) 활동 현황	64
4) 특징 및 시사점	122
2.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125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대학 분포	125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133
3) 특징 및 시사점	186
제4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동 조사	235
1. 매개인력 활동 현황 분석	236
1) 조사설계	236
2) 응답자 인구특성	237
3) 2021 매개인력,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현황	241
2. 만족도 및 매개인력 참여 의향 분석	236
1) 만족도	236
2) 매개인력 참여 의향	261
3. 정책 지원 요청사항 분석	236
1) 매개인력 활동을 위한 정책 지원 사항	236
2) 설문분석 총평	274
4. 매개인력, 동아리 활동 참여자 심층 인터뷰 (FGI)	277
1) 조사설계	277
2) 분석결과	280
3) 종합분석	295
제5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298
1. 기초문화재단과의 논의사항	299
1)	300
2. 실천방안 제언	322
1)	322
2)	323
3)	323

■ 참고자료 1.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설문지 ……	326
■ 참고자료 2.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대상의 심층인터뷰 녹취록 ……………	340

- 표 목 차 -

<표 2-1>	13
<표 2-2>	16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 체계도	4
<그림 2-1>	12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충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 연구 결과,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하였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프로그램의 양적 제공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질적 측면은 학교 교사-예술강사 간 소통부족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의 수업이 학교 교육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였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도내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이 적었고, 그마저도 충남 북부권역(천안, 아산)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전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교육강사, 기획자 등)들의 타지역 이탈현상이었으며, 이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인식과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충남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매개인력의 타지역 이탈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매개인력의 교육방향 이해 부족과 문화예술교육의 위축 현상은 동시에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충남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를 촉매할 매개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매개인력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작년 연구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이를 유도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을 1차 목적으로 함
- 또한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촉매할 매개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2차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향후 충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의 구축을 이룰 광역-기초센터 간 역할분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6개 생활권별 매개인력 양성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를 활용될 예정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15개 시·군 전역)

(2) 대상적 범위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기획자, 교육강사, 행정인력 등)
 - 충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진흥원 학교/사회 예술강사
 -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 단체 참여자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수강 중인 재학생

(3) 시간적 범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 (2년)

(3) 내용적 범위

① 기초·현황조사

- 국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중앙, 광역)
- 국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운영 사례 (중앙, 광역, 기초)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주 활동 영역에 대한 조사 (진흥원 예술강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재단 공모사업 선정 단체 참여자, 문화예술교육사 등)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현황 조사 (매개인력 수, 거주 현황, 전공(장르)별 특성, 교육대상별 특성 등)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대학 및 학과별 운영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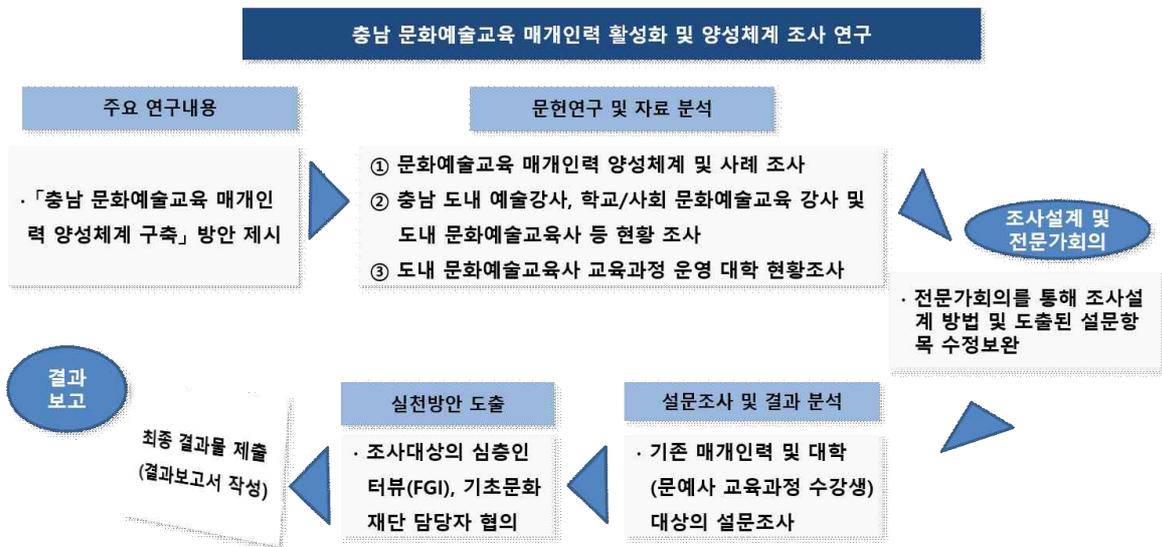
② 분석·연구

- 충남 도내 기존 매개인력과 신규 매개인력(예비) 대상의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실시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정 인원(6명)을 선정하여 대상자 심층 인터뷰 실시

③ 제언

- 충남 도내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
- 광역↔기초 간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방안
- 종합결과 도출 및 실천방안 제언

2) 연구의 방법



<그림 1-1> 연구 체계도

(1)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국내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하고, 2020년 기준,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의 운영 사례를 탐색함

(2) 현황조사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주 활동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영역별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매개인력의 활동 현황(매개인력 수, 거주 현황, 전공별 특성 등) 및 신규 매개인력의 양성 현황(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대학 및 학과의 운영 실태) 을 조사 연구함

(3)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FGI)

- 기존 매개인력 (진흥원 예술강사, 재단 공모사업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사)
- 신규 매개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

① 설문조사

- ㉠ 표본 추출 : 편의추출법
- ㉡ 조사 방법 : 규격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설문
- ㉢ 조사 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 2021년 12월 13일(월) [총 8일간]
- ㉣ 조사 내용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현황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 (교육내용)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타 지역 활동 의향
 - 「충남문화재단」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의 인지도와 만족도

② 심층 인터뷰 (FGI)

- ㉠ 인터뷰 대상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6명
- ㉡ 인터뷰 방법 :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시행
- ㉢ 인터뷰 기간 : 총 2회 실시
 - [1차] 2021년 12월 14일(화) 14:00 - 15:30
 - [2차] 2021년 12월 17일(금) 14:00 - 15:30
- ㉣ 인터뷰 장소 : 화상회의 (zoom회의)
- ㉤ 인터뷰 내용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동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충남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 매개인력 역량강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에 관한 논의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체계의 방향성 논의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들의 도내 유입방안 논의
 - 그 외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향 논의

3. 연구결과 요약

1)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제2장 국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현황

1.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 국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화되었음
- 2010년 국악 분야의 예술강사 사업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활동이 확대되었음. 예술강사의 수가 극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 「아르테아카데미」가 신설되어 본격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운영되었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진흥원이 운영하였으나, 이후 17개 광역시병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며, 광역 시도별로 예술강사 대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자체 실시하게 되었음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사업 시실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매년 사업 초기에 대상별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사업 등)이 시작된 시점은 있었음. 매년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참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이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재단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이것이 광역단위 재단의 역량강화교육의 추축을 형성하고 있음
-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법적 보장되었고, 2013년부터 전국의 예술대학 및 지정교육기관(권역별 13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1)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수행 중인 매개인력 양성의 정책 방향 및 사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자체별 문화예술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매개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2.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사례

1) 광역시도별 추진 사업

-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패턴을 살펴보면, 크게 1)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2) 매개자 양성교육 3)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 지원사업의 경우, 꿈다락토요문화학교와 지역 특성화 지원사업을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별 자체사업으로

(1)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①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서울형 TA 역량강화 아카데미)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19년 기준,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②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New AiE(Arts is Education); 예술교육창작과정)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19년 기준,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③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TA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19년 기준,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④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19년 기준,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2)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대전문화재단)

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19년 기준,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표 2-1> 충청북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 문화기반시설 (2021)

번호	지역	시설명
1	강릉	강릉문화재단
2	영월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3	춘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4	춘천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5	정선	삼탄아트마인

② 문화예술교육 키움

- 사업소개: 예비(청년) 기획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 사업분야: 대상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희망자
- 교육장소: 대전예술가의집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교육, 사례탐방, 기획실습, 프로그램 운영, 결과발표회
- 추진방법: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 이음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 키움의 연계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키움 교육 전체 과정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표로 함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12월

- 사업분야: 대상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키움 아카데미 참여자
- 교육장소: 대전예술가의집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실습비 지원

③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교육

- 사업소개: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12월
- 사업분야: 대상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키움 아카데미 참여자
- 교육장소: 대전예술가의집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실습비 지원

③ 꿈지락 페스티벌

- 사업소개: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12월
- 사업분야: 대상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키움 아카데미 참여자
- 교육장소: 대전예술가의집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실습비 지원

③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역량강화 워크숍

- 사업소개: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12월
- 사업분야: 대상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키움 아카데미 참여자
- 교육장소: 대전예술가의집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실습비 지원

③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예술더하기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적 강수상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임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팀
- 지원대상: 지역 내 초등·중학교
- 사업예산: 150,000천원
- 사업내용: 공교육 내 장르 융합 팀티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방법:

③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 사업소개: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팀

- 지원대상: 지역 내 초등·중학교
- 사업예산: 150,000천원
- 사업내용: 공교육 내 장르 융합 팀티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강원문화재단)

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강원도내 문화기반시설,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21년 기준, 191,000천원(지원예산 18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표 2-1>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 문화기반시설 (2021)

번호	지역	시설명
1	강릉	강릉문화재단
2	영월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3	춘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4	춘천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5	정선	삼탄아트마인

②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소개: 강원도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활

동) 공간확보와 기획인력 발굴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지역 내 공간 활용형인 '우리동네 사랑방'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형인 '우리동네 흥반장'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업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약지역(최근 5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건수 5개 미만지역)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표 2-1> 강원문화재단 기반조성 지원사업 세부내용 (2021)

구분	1년차	2년차
우리동네 흥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활동가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역량강화 활동 지원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럿 프로그램이 지역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 지속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지역 내 타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우리동네 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기획 컨설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심화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 •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관련 컨설팅 제공

<표 2-1> 강원문화재단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단체 (2021)

번호	사업지역	운영단체명	프로그램명
1	동해	아트팩토리 반달	2021 축축한 예술마을X동해프로젝트
2	인제	작은도서관 숲으로	덧발 미술관
3	홍천	모션앤이모션	우리동네 예술학교로 마카모이
4	양구	사이,문화예술연구회	너와 내가 행복한 사이-마을동화 콘서트(연극회)
5	동해	협동조합 아트로드	예술을 담다
6	태백	태백관광문화연구소-BOW	태백이야기-산골스케치
7	속초	이승아	우리동네 흙씨들 모여라
8	인제	정성우	불어라 청춘바람~ 시니어 빅밴드
9	인제	가족올래하추리마을회	하추리산촌학교 미술시간
10	홍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
11	평창	도시문화예술	'RAINBOW 700' culture art map (무지개 평창문화관광지도)
12	인제	인제100인오케스트라	산골 오케스트라 이야기

13	태백	태백아라레이보존회	정담은 예술마을=황지동 프로젝트
14	횡성	김경숙	2021 기반조성 지원사업
15	정선	이경훈	다시함께
16	횡성	최은준	숲 노리 행성(횡성)

③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 사업소개: 강원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원도 문화 예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인적자원 발굴 및 도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
- 사업기간: 2021년 5월 ~ 12월
- 사업지역: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인과 단체 및 강원도민
- 사업예산: 12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세부내용:

<표 2-1>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세부내용 (2021)

구분		주제 및 내용	개최시기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	예술인	•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습	8월
		• 문화예술 기획과 마케팅 • 문화예술계 흐름의 이해와 이슈 분석	11월
	무대전문 인력	• 음향, 조명, 기계 등 무대예술의 이해와 전문성 강화 • 도내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 향상	11월
교사		• 도내 교사의 예술 감수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 •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이해	8월
일반도민		• 일상 속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문화예술 향유의 가치	11월

④ 강원문화예술교육 웹진 ‘있다’

- 사업소개: 도내 문화예술교육가 및 예술가들의 교류·소통의 장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웹진을 발간함.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강원 웹진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가자 함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지역: 강원도 전역
- 사업예산: 33,000천원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세부내용: 총 2회(7/11월)웹 발행 및 통합 단행본 발행

<표 2-1>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 웹진 '있다' 세부내용 (2020)

2020년 대주제		
강원 문화예술교육, 새로이하다.		
콘텐츠 구성		
있다	생각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 등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글 • 문화예술교육 최신 동향 및 이슈 등을 다룬 기고문(해외사례 포함) • [특새]: 이전 발간호에 대한 독자 리뷰
	마음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가, 운영단체 등 관계자 간 좌담 또는 대담
있다	사람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강사 등 매개자 대상 인터뷰 •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철학, 태도 등 심층 조명
	현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을 심도 있게 소개, 르포 및 수기 형식
	이곳에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가 강원도의 곳곳을 기행하며 그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발견해 보는 기행 연재문 (※1명의 전문가가 연재 형식으로 기고) • 강원도 내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공간을 직접 발굴 및 취재하여 소개하는 현장 르포 (※독자 참여 가능)
문화가 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영화, 공연, 전시 등 작품 속에서 발견한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소개하는 에세이 형식의 글(리뷰)

⑤ 연구모임 지원사업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최소의 단위인 매개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호 교류체계와 협력망을 마련하고 연구모임 참여자 개인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함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업지역: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사업예산: 6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단체 및 개인간 협력망 구축을 통해 소재지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 프로그램 개발
- 향후 거점 역할을 할 단체 발굴과 도내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참여할 대상 모집 후 재단 주도의 워크숍, 컨설팅을 통해 결과물 도출

(4)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북문화재단)

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 제공 및 전문인력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에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도내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
- 사업예산: 240,000천원(국비 120,000천원, 도비 21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주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 인력으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표 2-1> 충청북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기반시설 (2020)

연번	지역	사업명	채용기간	근무기간
1	청주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2020.04.16.~2020.12.15	8개월
2	청주	이야기가 있는 공방	2020.05.04.~2020.12.31	8개월
3	청주	알록달록 실사(사) 판(판)	2020.04.01.~2020.11.30	8개월
4	청주	뉴미디어아트로 즐기기	2020.05.01.~2020.12.31	8개월
5	증평	너로 인해 행복한 교실	2020.04.01.~2020.11.30	8개월
6	충주	옛 사람들의 낭만과 풍류	2020.04.01.~2020.11.30	8개월
7	충주	빛밤 펼치Go!	2020.05.01.~2020.12.31	8개월

②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문화예술 체험 및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종사자,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진행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유·초·중·고등교사, 청소년지도사, 공공기관종사자 등
- 사업예산: 45,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문화예술 체험 및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종사자,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장
 -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삶과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

<표 2-1>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실적 (2020)

참여기관	일정	인원	대상	연수내용(강사)
	4회	107명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07	30	청소년지도사	Z세대는 어떻게 소통할까 (이경선 위드컬처 대표)
충북교육문화원	11.02	29	유·초등교사	선생님과 학생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이유 (손지숙 LG 마케터)
충북교육문화원	11.05	28	초·중등교사	코로나가 터져도 1분에 100명씩 대기하는 수업, 그녀는 무엇을 가르칠까? (윤소정 뛰어노는 논술 대표)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11.27	20	재단임직원	비대면 행사기획 어떻게 해야할까? (최윤현 문화기획자)

③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 사업소개: 충북의 현안을 문화예술자원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충북문화전문인력 양성 후 사후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1월

- 참여대상: 충북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충북도민
- 사업예산: 3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비대면 시대 문화예술 저작권에 대한 유형별 세부 강좌 및 스마트기기 및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 강좌 지원
 - 지역 중심 선도적 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충북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바로 알기 강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가능성 진단

<표 2-1> 충북문화재단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2020)

강좌구분	연번	강의명	강사	비고
(강좌1) 지역 중심 선도적 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충북형 문화예술교육	1	관성을 넘어서는 경험의 기획과 헬로우아트랩	임재춘(커뮤니티 스튜디오 104 대표)	공개강좌
	2	사소한 것의 의미 또는 실체 없는 공동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방향성)		
	3	지역주민과 기획자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강좌2)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별로 알아보기	4	문화예술 저작권 이해	박경신(現 경희사이버대학 교 문화예술경영학 과 교수)	충북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가입 후 시청 가능
	5	문화예술 계약 바로 알기		
	6	시각예술 저작권 및 계약		
	7	공연예술 저작권 및 계약		
	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아트 저작권 및 계약		
	9	지원사업 저작권 및 계약		
(강좌3) 유아문화예술교육이 란 무엇이며 이를 통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가능성	10	유아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김태희(바라예술 성장연구소장)	충북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가입 후 시청 가능
	11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 알아야할 유아기 특성		
	12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 알아야할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13	예술가의 창의성, 전문성을 활용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14	유아와 예술로 행복한 현장수업의 실전과 팁		
	15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가능성		
(강좌4)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 활용법	16	[미디어이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하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협력 강좌	본 강좌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협력 강좌
	17	[미디어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1		
	18	[미디어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2		
	19	[미디어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3		

④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 ‘헬로우아트랩’

- 사업소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실험적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삼음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매개자(기획자, 예술강사, 교사 등)
- 지원대상: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애정과 배움의 의지가 있는 단체 및 교사
- 교육대상: 충북도민 누구나
- 사업예산: 150,000천원(민간지원 100,000천원, 운영지원 50,000천원)
- 세부내용: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연구와 학습, 협력의 과정과 동기를 지원하는 연구 및 지역형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연구방향을 지도하는 연구학교 주제랩·교강사랩 단체 간 연구동아리(CoP) 운영 지도

<표 2-1> 헬로우아트랩 운영단체 현황 (2020)

연번	지역	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사업비
1	청주	공작플러스	사회적거리두는 문화예술이야기	신수정	8,000천원
2	음성	극단 잇-다	엄지원연극제	황미영	10,000천원
3	청주	무/음필름&사운드아트협회	누구누구 엄마의 클래스	김기성	10,000천원
4	음성	문화공동체 CUP	작품과 유물사이	장에스더	8,000천원
5	충주	살로메	예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이해	김세영	10,000천원
6	청주	예술가프리즘	엄마가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정희경	8,000천원
7	청주	오소록	개미실마을에 이런 막장이	변상이	7,770천원
8	청주	어글리밤	합학야학:뮤직큐레이션	전혜원	10,000천원
9	음성	극단 배꼽, 장창환(소이초)	우리마을 원정대	이성희	15,431천원
10	영동	오직, 이미림(부용초)	아지트메이커스 시즌2	이선희	12,480천원
계		10개 단체			99,681천원

(6)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경북문화재단)

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 사업소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업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경상북도내 문화기반시설,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예산: 2021년 기준, 191,000천원(지원예산 18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주관: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내용: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선정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 선발
 - 인턴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지원
 - 개발·기획 된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적용하여 운영 지원

<표 2-1> 경상북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 문화기반시설 (2021)

번호	지역	시설명
1	문경시	강릉문화재단
2	칠곡군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3	영천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4	안동시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5	영주시	삼탄아트마인

② 헬로우아트랩사업

- 사업소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실험적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생력 확보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업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약지역(최근 5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건수 5개 미만지역)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충남 도내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

(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 202

(2)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 202

(3) 충남문화재단 매개인력 양성사업

- 2021년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은 (1) 충남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2) 충남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역량강화 (3)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기한판' 등 총 3가지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였음

①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동 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중 39세 이하 및 취득 3년 이하의 인력을 주 대상으로 도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매칭을 통한 인턴십(추후 역량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은 2020년 3월~12월까지 총 10개월이었으며, 2019년 기준, 240,000천원

(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 운영되었고, 예산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매개인력의 10개월(월 2,000천원) 인건비로 사용되었음

<표 2-1> 충남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기반시설 (2020)

지역	시설명	문화예술교육사
금산군	금산문화의집	엄태성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박미진
천안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천안분점	조소연
예산군	예산문화원	윤선정
당진시	당진문화예술학교 ((재)당진문화재단)	이세영
공주시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박다연
아산시	당림미술관	이아현

- 충남도에서는 인턴십 사업 내에서 운영시설 담당자 및 교육사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여 센터와 운영시설, 문화예술교육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2020년의 경우, 7회 운영/ 14명 참여/ 전체 만족도 92점 달성)

(2) 충남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역량강화

- 본 사업은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사업 담당자 및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및 매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임
- 2020년 사업의 경우, 77개 운영단체 사업 담당자 및 참여인력 사업 담당자 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12월 사이 총 7회 운영되었음 (소규모그룹 6회+전체 1회의 형태)
- 사업운영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기준, 사업예산은 17,000천원이었음

<표 2-1> 충남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역량강화 주요내용

회차	날짜	주제	내용
1	11.13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 1인미디어 시대 동향 이해 및 효과적인 자기PR방법

	11.17	및 1인미디어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동영상 제작 플랫폼 활용 실습 • 유튜브 채널 운영 TIP(계정인증, 썸네일, 마케팅 방법)
2	11.20	포스트 모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가 현 소비 시장에 미친 영향 • '코로나 우울' 어떻게 극복했나요? •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방법
3	11.24	이제는 쉽다! 문화예술분야 세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단체 세무·회계 기초 •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및 실무 • 보조금 정산과 원천징수
4	11.30	나도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마술 인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술 교육 • 교육 참여자 간 소통
5	12.0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정산 실습 • 보조사업자 정산 사례 실습 • 사업비 정산 관련 질의응답
6	12.09	전체 비대면 역량강화 워크숍 '77개의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체)소개 및 네트워킹 •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표

(3)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기한판'

- 본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충남 도내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 2-186>와 같이 심화과정에서 총 3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활동을 수행하였음
- 기초과정에서는 도내 (예비) 문화기획자 및 활동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4개의 과정별로 각각 10~15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하였고, 각각의 과정은 당일 4시간씩의 단기과정¹⁾으로 운영되었음 (1인 1개과정 우선)
- 심화과정에서는 도내 문화예술기획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험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대학생, 19년도 과정 수료자, 20년도 기초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35명 내외(2개과정×2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고, 교육과정은 축제기획자 양성과정(8회) 과 도시/지역재생 기획자 양성과정(8회)으로 구분하여 운영

1) 구체적인 제목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 ([홍성] 라이프코칭 '내 삶의 나침반'(2020년 7월28일(화) 14:00~18:00), [공주] 퍼스널 브랜딩과정 '나만의 이야기'(2020년 7월30일(목) 14:00~18:00), [천안] 축제기획과정 '지역축제와 축제콘텐츠 개발'(2020년 8월4일(화) 14:00~18:00), [당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문화예술 창작과 교육의 본질(2020년 8월6일(목) 14:00~18:00))

되었음

<표 2-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기한판' 교육운영과정

구분	기초과정	심화과정	
일정	7.28(화)~8.6(목) 14:00~18:00	10.8(목)~11.27(금) 14:00~18:00(일정별 상이)	
시수	16시수 내외(4시간×4회) (2주 매주 화/목 4회 내외)	92시수 내외(심화과정 및 탐방 72시수, 파일럿 프로젝트 20시수) (매주 화~금 총 18회 내외)	
교육 내용	권역별·주제별 순회교육	2개 과정 소규모 분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홍성: 라이프코칭과정 • B공주: 퍼스널브랜딩과정 • C천안: 축제기획과정 • D당진: 문화예술교육 교수법과정 (4차산업혁명 관련) ※ D당진지역 프로그램은 당진문화재단 기획·운영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육 • 축제의 이해 • 축제 홍보마케팅과 이벤트 기술 • 행정실무 • 축제 운영현장 운영실무와 위기관리 •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축제 기획서 작성법 • 멘토링 워크숍, 현장탐방 • 수료식, 파일럿 프로젝트 	도시/지역재생 기획자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육 • 도시재생의 이해와 흐름, 사례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재생 • 공간과 도시재생 • 스토리텔링과 브랜딩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기획자의 글쓰기, 기획서 작성 • 멘토링 워크숍, 현장탐방 • 수료식, 파일럿 프로젝트
교육 방식	이론 및 실무, 토론 등	공통교육, 이론교육, 실무교육, 탐방, 멘토링 워크숍,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실행	
대상	만 19세 이상 교육 희망자 누구나 (예비)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기관/단체 실무자 또는 관심자 등)	만 19세 이상 경력자 중 교육희망자 *19년도 내기한판 수료자, 20년도 기초과정 참여자, 문화예술기획 분야 3년 이상 경험자,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대학생	
모집 인원	40명 내외(권역별 10명 내외×4권역)	35명 내외(권역별 20명 내외×2개 권역)	
교육 비용	무료		

- 또한 심화과정에서 총 3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020년 선발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각각 도시/지역재생, 축제, 축제 프로그램으로 약 1개월간의 준비 및 컨설팅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
- 전체 예산은 도 출연금 72,000천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교육과정(기초/심화과정) 집행액(미기재)과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금 20,000천원(6,000~7,000천 원씩 3팀) 이 집행되었음

<표 2-1> 심화과정: 파일럿 프로젝트 선정 및 실행

연번	유형	팀명	프로그램명	대표자명 (팀총원)	내용
1	도시지역 재생	Walkaholic (워커홀릭)	삼교천 독길 따라서	이자연 (6명)	지역/문화/스토리가 있는 삼교천 산책길을 따라 온·오프라인 참여형 걷기행사

					개회 (선정금액: 7,000천원)
2	축제	우리다	모여봐요, 사연의 숲	조승현 (6명)	사연, 해소, 여행이라는 세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 개최 (선정금액: 7,000천원)
3	축제	청춘관람	청춘HouShow (하우쇼)	전주혜 (6명)	농촌(당진) 비닐하우스 활용, 농촌스토리를 토크쇼, 연주, 공연 등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 (선정금액: 6,000천원)

4) 특징 및 시사점

(1)

○

제3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현황

1.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현황

1) 매개인력의 활동 영역

(1)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의 활동

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사업으로,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책사업임
-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해당분야 예술전문성과 학교의 교육과정별 커리큘럼을 토대로 예술강사가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고, 특히 '관련교과(기본교과, 선택과목)'의 경우 해당분야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교사-예술강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게 됨
- 수업유형은 기본교과의 경우,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에서 연계수업을 실시하고, 선택과목은 기본 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과목에서 연계수업을 실시하게 됨
- 그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토요동아리 수업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의 수업을 담당하게 됨
- 17개 광역시·도별 학교 예술강사의 선발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공모방식으로 실시하며, 선발된 학교 예술강사의 배치 및 운영·관리는 17개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2021년 충남도의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임
- 선발방식은 장르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원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실기를 통해 최종인원을 선발하게 됨
- 선발 기준은 지원 강사의 전공 여부 및 경력, 강사가 제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의 적정성 여부이며, 10개월 이내 계약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게 됨
- 2021년 충남 도내 학교 예술강사는 총 286명이 선발되어 활동을 수행하였음

②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

-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방과후학교 및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강사들이 이에 해당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지원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임
- 선발 기준은 역시 지원 강사의 전공 여부 및 경력, 강사가 제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의 적정성 여부이며, 학기별 혹은 학년별 계약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게 됨
- 2020년 기준, 충남 도내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프로그램 수는 총 2,244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방과후학교 1,365개, 자유학기제 307개, 동아리활동 572개 등으로 구분됨
- 다만 강사의 경력과 전문성별로 학교별 중복 강의가 가능하기에 현재 충남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엔 힘든 상황임. 추후 충남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DB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의 활동

① 사회 예술강사 지원사업 (복지지관)

- 「복지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의 선발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선발방식은 역시 지원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인원을 선발하게 됨
- 선발 기준은 사업 취지 및 복지시설 환경, 참여자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활동계획의 구체성과 적합성, 고유성을 평가하며, 10개월 이내 계약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게 됨
- 2021년 기준, 충남 도내 사회 예술강사는 총 18명이 선발되어 활동을 진행하였음

② 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문화예술교육시설)

- 충남 도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평생교육시설 등의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이에 해당하며, 강사의 선발방

식은 강사 인력풀 활용 및 공개 채용, 초빙의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충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는 주로 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었음
- 반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16곳),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시민사회단체 운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비교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과의 연계를 통한 거점공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참여 (단체, 개인)

- 전술한 강사 활동과는 달리, 문화예술교육 단체로서 충남 도내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함. 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단체 수와 이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충남문화재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충남문화재단(충남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²⁾은 크게 (1)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만 3~5세 유아), (2)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학령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3)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체험 캠프(충남도내 희망 중학교), (4)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충남 도내 지역주민), (5)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충남 도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6)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 지원사업(충남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7)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매개인력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역시 존재하는데, (1)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충남 도내 50~64세 신중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행정활동 희망자), (3)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초1학년~중1학년(소외계층 60% 이상 포함))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함

2)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cacf.or.kr/_kor/designer/skin/03/sub09.php)

2) 매개인력의 조사 현황

(1) 매개인력 수 (추산)

- 전술한 바와 같이 충남 도내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의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강사(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내의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강사(문화예술교육시설),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단체 혹은 개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충남 도내 예술강사의 수는 총 286명이며, 2020년 기준, 방과후학교(1,365(개)명)³⁾ 및 자유학기제(307(개)명)⁴⁾, 동아리활동(572(개)명)⁵⁾에 참여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는 약 2,244(개)명으로 추산됨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내 충남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활동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 수는 파악할 수 없었으며, 2021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참여한 충남 도내 예술강사 수는 총 18명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2021년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한 매개인력 수는 총 410명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충남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수는 총 2,672(개)명으로 추산할 수 있음 (단, 강사 1인이 담당하는 중복 강좌 수는 고려하지 않았음)
- 충남 도내 거주자 중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수는 572명이었음(2021년 12월 기준)

-
- 3)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의 수를 산출한 방식은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수의 합'을 산출한 것임. 이 중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비율은 조사되지 않아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체 합을 산출하였음.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272개교 중 98.2%의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학교별 평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수가 3.6개로 집계됨에 따라 총 961개의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 (초등학교 961개, 중학교 305개, 고등학교 99개로 총 1,365개의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한다고 볼 수 있음)
 - 4)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의 수를 산출한 방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프로그램 개수의 합'을 산출한 것임. 예를 들어 설문에 응답한 131개교 중 97.7%의 학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평균 프로그램 개수가 2.4개로 집계됨에 따라 총 307개 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
 - 5) 학교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의 수를 산출한 방식은 학교별 동아리활동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동아리 개수의 합'을 산출한 것임.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242개교 중 76.9%의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있었고, 학교별 평균 동아리 개수가 1.5개로 집계됨에 따라 총 313개의 동아리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 (초등학교 279개, 중학교 211개, 고등학교 82개로 총 572개의 동아리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조사만으론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없기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충남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중복인원을 제외한 구체적인 인원의 파악이 시급할 수 있음

(2) 매개인력 거주 현황

- 본 연구에서는 매개인력의 거주지역 및 교육대상, 전공별 분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학교 예술강사(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86명, 사회 예술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8명, 문화예술교육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72명,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충남문화재단) 참여자 410명 등 총 1,286명⁶⁾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들 매개인력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북부내륙권 524명(40.8%), 중부권(백제) 220명(17.1%), 북부해안권 193명(15.0%), 대전·논산근교권 176명(13.7%), 중부권(내포) 99명(7.7%), 서남부권 74명(5.8%)으로, 전체 인원의 40.8%가 북부내륙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표 2-179> 충남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권역별 거주 현황 (2021)

지역		학교예술강사 (순천향대)	사회예술강사 (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사(진흥원)	재단 공모사업 참여자	총계
북부내륙 권(524)	천안시	86	2	226	45	359
	아산시	53	6	77	29	165
북부해안 권(193)	서산시	22	0	32	34	88
	당진시	18	0	42	38	98
	태안군	2	0	5	0	7
중부권 (내포)(99)	홍성군	10	0	19	45	74
	예산군	4	0	10	11	25
중부권 (백제)(220)	공주시	25	2	37	99	163
	청양군	3	0	6	19	28

6) 본 연구에서 조사자를 취합한 방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충남지역 사회 예술강사 기초 통계자료> 상의 18명과 <충남지역 문화예술교육사 기초 통계자료(2020.12.03.까지의 누적인원)>상의 572명, 그리고 「2020년 충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인 (사)한국예총 충청남도 연합회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충남지역 학교예술강사 기초 통계자료> 상의 286명, 그리고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강사 및 기획자 410명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한 인원임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체 명수만을 제공받았을 뿐 개인정보가 동반된 리스트를 확보할 수 없어서 종사자의 중복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음. 따라서 충청남도 도내에서 활동하는 실제 종사자 수와 격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여군	7	0	16	6	29
서남부권 (74)	보령시	5	0	23	16	44
	서천군	6	1	13	10	30
대전·논산 근교권 (176)	논산시	21	3	28	21	73
	계룡시	17	2	28	33	80
	금산군	7	2	10	4	23
계		286	18	572	410	1,286

- 북부내륙권 매개인력의 특징은 재단 공모사업의 참여자 보다는 학교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수가 더 많다는 점인데, 이는 지역 내 매개인력에게 제공되는 역량강화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시군 내 문화예술교육사가 다수 분포한다는 점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처에서 자격증을 채용의 조건으로 우대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수가 많은 것⁷⁾으로도, 또한 자격증 취득자가 원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확인이 불가하며, 매개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리스트 확보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북부내륙권 다음으로 많은 매개인력 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부권(백제)의 공주시(163명)의 경우, 학교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수보다 재단 공모사업 참여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매개인력 역량강화교육의 비중이 재단 공모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재단 공모사업 참여자 대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지역 내 매개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음
- 이의 상황은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 근교권 등 충남 북부를 제외한 중부, 남부권역의 공통된 상황이기에 재단 공모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해야 한점을 말해주고 있음
- 결국 매개인력의 인원 및 전문성의 북부내륙권 편중 현상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5개 생활권의 경우, 매개인력의 확보방안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6개

7)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데, 문화예술교육사 중 비경력자의 분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사의 일반적인 경력, 비경력 분포는 50:50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생활권별 매개인력의 도내 전체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유입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매개인력 개인의 거주 또는 활동지역을 해당 시·군에 국한하지 말고 도내 생활권 전체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과 매개인력의 전공(장르) 및 주된 생애주기별 대상의 교육경험을 고려하여 대상별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매개인력의 전공(장르)별 특성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전공(장르)별 특성을 파악해 보면, 학교 예술강사, 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별로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① 학교 예술강사

- 우선 '학교 예술강사'의 장르별 분포는 '국악(40.9%)' 분야로 편중되어 있었고, 다음으로는 '연극(21.3%)', '무용(17.8%)', '공예(7.0%)' 분야의 순⁸⁾이었음
- 따라서 충남 도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주된 장르는 공연예술(국악, 연극, 무용 등) 위주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 및 자율활동,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교 활동의 주된 장르가 '음악'과 '미술'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8개 분야에 학교 정규교과목인 '음악'과 '미술'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특정 영역 위주로 편중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위주의 예술강사들이 타 장르를 통섭하여 '장르별 융합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상황이고, 또한 「충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단체에서도 별도의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매개자의 전공(장르)가 국악, 연극, 무용 분야 등으로 편중되는 것은 학교 예술강사의 전공(장르)별 활동 시작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180> 충남 도내 학교 예술강사 장르별 분포 현황 (2021)

지역		국악	공예	디자인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	사진	총계
북부내륙권(139)	천안시	31	6	1	23	17	2	4	2	86
	아산시	21	3	4	9	11	2	3	0	53
북부해안권(42)	서산시	11	1	1	3	4	2	0	0	22
	당진시	8	0	0	7	3	0	0	0	18
	태안군	1	0	0	0	1	0	0	0	2
중부권(내포)(14)	홍성군	4	0	1	3	1	0	1	0	10
	예산군	0	0	0	3	1	0	0	0	4
중부권(백제)(35)	공주시	7	1	2	5	7	0	3	0	25
	청양군	1	0	0	1	0	0	1	0	3
	부여군	6	0	0	0	0	0	1	0	7
서남부권(11)	보령시	1	2	1	0	0	1	0	0	5
	서천군	2	0	0	1	1	0	2	0	6
대전·논산근교권(45)	논산시	10	4	1	3	2	0	1	0	21
	계룡시	11	3	0	1	1	0	1	0	17
	금산군	3	0	0	2	2	0	0	0	7
계		117	20	11	61	51	7	17	2	286

② 사회 예술강사

- '사회 예술강사'의 장르별 분포는 오히려 '미술(33.3%)'과 '연극(33.3%)'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사회 예술강사'의 활동 영역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충남 도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르는 '미술'과 '연극'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사회 예술강사'들의 프로그램 역시 타 장르를 통섭하여 '장르별 융합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충남 도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편중된 장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와 홍보가 부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181> 충남 도내 사회 예술강사 장르별 분포 현황 (2020)

지역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총계
북부내륙권(8)	천안시	0	0	0	1	0	1	2
	아산시	1	0	2	2	1	0	6
북부해안권(0)	서산시	0	0	0	0	0	0	0
	당진시	0	0	0	0	0	0	0
	태안군	0	0	0	0	0	0	0
중부권(내포)(0)	홍성군	0	0	0	0	0	0	0
	예산군	0	0	0	0	0	0	0
중부권(백제)(2)	공주시	0	1	1	0	0	0	2
	청양군	0	0	0	0	0	0	0
	부여군	0	0	0	0	0	0	0
서남부권(1)	보령시	0	0	0	0	0	0	0
	서천군	0	0	0	1	0	0	1
대전·논산근교권(7)	논산시	0	0	1	1	0	1	3
	계룡시	1	0	1	0	0	0	2
	금산군	0	0	1	1	0	0	2
계		2	1	6	6	1	2	18

③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사'의 장르별 분포는 '국악(24.7%)' 및 '음악(21.9%)' 분야로 편중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미술(11.2%)', '연극(10.1%)', '공예(7.3%)', '무용(6.1%)' 분야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는 향후 충남도를 기반으로 활동할 매개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물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중 약 50% 가량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 인력이지만,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모두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들의 전공 장르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공연예술(국악, 음악, 연극, 무용 등 62.8%) 전공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아래 <표 2-182>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권별 자격증 취득자의 전공 장르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장르별 차별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일 수 있고, 지역을 넘어 충남 도내 전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별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표 2-182>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장르별 분포 현황 (2020)

지역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영화	이수자	총계
북부내륙권(303)	천안시	17	47	12	9	16	31	4	22	50	6	12	226
	아산시	4	19	7	3	8	4	1	12	15	1	3	77
북부해안권(79)	서산시	1	10	1	2	0	3	1	2	11	1	0	32
	당진시	1	7	4	0	1	5	0	3	10	0	11	42
	태안군	0	1	0	0	1	0	0	2	0	0	1	5
중부권(내포)(29)	홍성군	0	7	1	0	0	2	1	5	2	0	1	19
	예산군	0	0	0	1	0	3	1	1	2	0	2	10
중부권(백제)(59)	공주시	3	10	2	5	3	5	0	4	4	0	1	37
	청양군	1	2	0	1	0	0	0	1	1	0	0	6
	부여군	3	7	0	1	1	1	0	2	0	0	1	16
서남부권(36)	보령시	3	5	1	0	3	3	0	2	5	1	0	23
	서천군	3	3	1	1	0	1	1	1	2	0	0	13
대전·논산근교권(66)	논산시	5	10	1	1	1	3	0	1	6	0	0	28
	계룡시	1	10	0	0	1	2	0	0	12	1	1	28
	금산군	0	3	0	0	0	1	0	0	5	0	1	10
계		42	141	30	24	35	64	9	58	125	10	34	572

(4) 매개인력의 교육대상별 특성

- 매개인력의 교육대상별 특징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음. 우선 '학교 예술강사'의 경우, 지역 내 예술강사 1명이 초·중·고를 구분없이 배치받기 때문에 대상별 구분이 무의미함
- 이는 교육대상별 특성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운영상의 다른 기준을 중심으로 「학교

-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음
- '사회 예술강사' 역시 매개인력 수의 부족과 더불어 이들이 담당하는 대상층 역시 아동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충남 도내 시·군별 인구통계 현황이 노년층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음
 - 물론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요와 지역별, 대상별 배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충남 도내의 지역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지역 내 교육대상별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남 도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2-183> 충남 도내 사회 예술강사 대상별 분포 현황 (2020)

지역		아동	노인	장애인	총계
북부내륙권(8)	천안시	1	1	0	2
	아산시	3	0	3	6
북부해안권(0)	서산시	0	0	0	0
	당진시	0	0	0	0
	태안군	0	0	0	0
중부권(내포)(0)	홍성군	0	0	0	0
	예산군	0	0	0	0
중부권(백제)(2)	공주시	1	1	0	2
	청양군	0	0	0	0
	부여군	0	0	0	0
서남부권(1)	보령시	0	0	0	0
	서천군	1	0	0	1
대전·논산근교권(7)	논산시	1	2	0	3
	계룡시	2	0	0	2
	금산군	1	1	0	2
계		10	5	3	18

(5)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단체, 개인)

- 2021년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 수는 총 130곳이었고, 이 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77곳이 도내 15개 시·군별로 교육대상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충남문화재단」이 제공한 <2021년 재단 공모사업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매개인력 수는 기획자 80명과 주/보조강사 330명을 합한 총 410명⁹⁾이었음

<표 2-184> 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참여 종사자 현황 (2020)

구분	유아	꿈다락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인턴십	장애인	학교밖	총계
	(4개)	(31개)	(27개)	(2개)	(7개)	(3개)	(2개)	
기획자	0	39	27	2	7	3	2	80
주/보조강사	14	168	96	13	23	8	8	330
총계	14	207	123	15	30	11	10	410

- 이는 학교/사회 예술강사의 역량강화교육이 매개인력의 교육전문성에 맞춰져 있고,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교육이 신규인력의 양성에 맞춰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기본 매개인력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기획자와 행정인력, 교육강사별로 구분된 역량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음

3) 특징 및 시사점

- 충남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활동 영역으로는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 내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강사 활동, 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단체 구성원 참여, 종사자 대상 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 문화예술교

9) 이들은 각각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4명(주/보조강사 14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 207명(기획자 39명, 주/보조강사 168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23명(기획자 27명, 주/보조강사 96명),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체험 캠프」 15명(기획자 2명, 주/보조강사 13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30명(기획자 7명, 주/보조강사 23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발달 지원사업」 11명(기획자 3명, 주/보조강사 8명),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0명(기획자 2명, 주/보조강사 8명) 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육시설 강사 활동은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9~2023)> 수립 이전에도 운영되어 왔던 기존 사업으로 볼 수 있기에, 「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종합계획(2019~2023)> 내 문화재단 실행과제와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이행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통계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충남도내 사업 운영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었음. 특히 도내 인구 중 증가세에 있는 노년층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대응 양상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충남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사업의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일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현황

- 2013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대학, 전문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를 졸업하거나, 고졸 이상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일정 교과목을 이수¹⁰⁾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임
- 본 제도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확대 및 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 근거하였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법령에 자격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된 대표적인 인력양성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의 경우, 전국 권역별로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총 5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증을 부여받게 됨
- 현재 충남 도내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¹¹⁾은 총 20개 대학 50개학과로 조사되었음

<표 2-137>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현황

연번	학교명	본분교명	소재지	학과명	분야
1	공주대학교	본교	공주시	주얼리디자인전공	공예

10) 대학, 전문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분야 졸업자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내 5과목을 이수하고, 고졸 이상 비전공자는 15과목을 이수해야 함.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교육 3년 이수)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없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음

11) 조사방법은 충남 도내 2,3,4년제 거점대학 총 39개교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70곳을 취합하여 본 과제 연구원이 해당 학과로 직접 문의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음

2	공주대학교	본교	공주시	영상학과	디자인
3	공주대학교	본교	공주시	영상학과	디자인
4	공주대학교	본교	공주시	세라믹디자인전공	공예
5	남서울대학교	본교	천안시	유리조형디자인학과	공예
6	남서울대학교	본교	천안시	유리세라믹디자인학과	공예
7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인테리어	디자인
8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연극
9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조형회화전공	미술
10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컴퓨터음악전공	음악
11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성악·뮤지컬전공	음악
12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	음악
13	백석대학교	본교	천안시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	음악
14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디지털만화영상전공	만화애니메이션
15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사진
16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공예
17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디자인
18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디자인
19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스페이스디자인전공	디자인
20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천안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디자인
21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당진시	조형문화과	미술
22	순천향대학교	본교	아산시	공연영상학과	연극
23	순천향대학교	본교	아산시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만화애니메이션
24	청운대학교	본교	홍성군	연극예술학과	연극
25	청운대학교	본교	홍성군	방송연기학과	연극
26	한서대학교	본교	서산시	아동미술학과	미술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본교	부여군	전통미술공예학과	공예
2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	천안시	디자인공학과	디자인

○ 충남 도내 시군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17개 학과, 아산시 2개 학과, 서

산시 1개 학과, 당진시 1개 학과, 공주시 4개 학과, 부여군 1개 학과, 홍성군 2개 학과이며, 천안시에 과반 이상의 학과가 분포하여 역시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한 상황임

- 분야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디자인 8개 학과, 공예 6개 학과, 연극 4개 학과, 음악 4개 학과, 미술 3개 학과, 만화·애니메이션 2개 학과, 사진 1개 학과로, 디자인, 공예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충남 도내에 거주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582명이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자인, 공예, 미술 분야의 매개인력을 이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대학으로부터 충원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음

2) 대학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상명대학교

① 사진영상미디어전공

- 교과목의 개설시기는 2013년도¹²⁾이며, 학과의 인정분야는 사진이었음. 교과목 개설 수는 총 3과목이었으며, <사진교육론>과 <사진교수학습방법>을 1학기에, <사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2학기에 개설하고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위한 현장 실습 활동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표 2-183>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전공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12) 해당 학과에서 작성한 설문지에는 2009년도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시작 시기를 고려하여 2013년으로 기재하였음

교과목	수강정원	개설학기
문화예술교육개론	-	① 1학기 ② 2학기
사진교육론	50	■ 1학기 ② 2학기
사진교수학습방법	50	■ 1학기 ② 2학기
사진교육프로그램 개발	50	① 1학기 ■ 2학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① 1학기 ② 2학기

3) 지정교육기관 운영 현황

- 충남 도내 거주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권역 지정교육기관의 운영은 전무한 상황임
- 2013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정된 충남권역 지정교육기관은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두 곳이었음
- 두 곳의 문화예술교육원은 각각 서산시와 금산군에 위치하여 충남 북부와 남부에 거주 중인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지정¹³⁾ 과정에서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지정 취소되었으며,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은 경기도 고양시로 교육기관을 이전하여 수도권 지정교육기관으로 활동 중임
- 따라서 현재 충남 도내 거주 문화예술교육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타 권역의 문화예술교육원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상의 제약을 안고 있음

4) 특징 및 시사점

(1)

- 총

13) 2016.02.0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0개 지정」 참조.

6. 종합분석

1)

○

제3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동 조사

1. 매개인력, 동아리 활동 현황 분석

1)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를 위해 기관·단체, 기관·단체 종사자 및 참여인력(기획자, 참여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각 그룹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설문에는 응답자 일반특성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한 일반현황, 2019년도 활동 내역,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였음. 그 외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2019년도 활동 사항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포함시켰음

(2) 조사대상 및 방법

- 충남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400부가 배포되어 수거된 166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음¹⁴⁾

<표 3-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충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종사자	
표본크기	기관·단체	79곳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87명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기간	2020.11.26.~12,24 (29일간)	

14) 당초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설문조사는 낮은 회수율로 인해 조사 기간 후반부터 전자 우편과 전화를 지속 활용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개별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표본은 수집되었음. 다만, 거주지별 표본 수 차이로 인해 거주지에 따른 응답자 간 비교 분석이 수월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음

(3) 자료 수집 및 분석

- 설문에 대한 문의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하여 설문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원 및 조사 요원을 선정하여 설문의 취지와 내용을 사전공유하고, 설문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준비된 설문을 활용하여 모바일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2) 기본 특성

(1) 기관·단체 일반특성

- **[주소지]** <2020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의 응답 기관 또는 단체 79곳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북부내륙권이 25곳(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부권(백제) 13곳(16.5%), 대전논산근교권 12곳(15.2%), 북부해안권 11곳(13.9%), 서남부권 10곳(12.7%), 중부권(내포) 8곳(10.1%)이었음
- **[분류별]** 기관·단체 분류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기관/시설이 62곳(78.5%), 문화예술(교육)단체가 17곳(21.5%)으로 나타남
- **[유형별]** 응답 기관·단체의 유형으로는 (사단/재단/전문예술)법인이 24곳(30.4%), 시설(임의)단체 16곳(20.3%), 국공립(지자체·교육청) 14곳(17.7%), 기타 24곳(30.4%)로 확인됨
- **[인증 관련]** 응답 기관·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59곳(74.7%)으로 조사되었고, 계획 중인 곳이 14곳(17.7%), 이미 인증을 받은 곳이 4곳(5.1%)로 조사되었음
- **[대표 장르]** 기관·단체의 교육진행 장르를 살펴보면 연극, 무용, 국악, 음악과 같은 공연예술 장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39곳(4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융복합(통합)이 17곳(21.5%),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화, 디자인, 만화 포함)이 9곳(11.4%), 그리고 조형예술 분야와 인문학 분야가 각각 6곳(7.6%)으로 확인되었음

- [진행방식]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으로는 복합형이 45곳(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험/실습형이 17곳(21.5%), 강의/강좌형이 10곳(12.7%), 표현/창작형과 관람형이 각각 2곳(2.5%)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 기관·단체 일반특성

구분		응답현황	
		응답 수(곳)	%
전체		79	100.0%
주소지	북부내륙권	25	31.6
	북부해안권	11	13.9
	중부권(내포)	8	10.1
	중부권(백제)	13	16.5
	서남부권	10	12.7
	대전논산근교권	12	15.2
분류별	문화예술(교육)기관/시설	62	78.5
	문화예술(교육)단체	17	21.5
유형별	국공립	14	17.7
	법인	24	30.4
	시설(임의)단체	16	20.2
	기타	24	30.4
	무응답	1	1.3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인증받음	4	5.1
	계획하고 있음	14	17.7
	계획없음	59	74.7
	무응답	2	2.5
교육진행 장르	공연예술	39	49.4
	시각예술	9	11.4
	조형예술	6	7.6
	문학/비문학(인문학 포함)	6	7.6
	융복합(통합)	17	21.5
	무응답	2	2.5
프로그램 진행방식	강의/강좌형	10	12.7
	체험/실습형	17	21.5
	표현/창작형	2	2.5
	관람형	2	2.5
	복합형	45	57.0
	무응답	3	3.8

(2) 종사자 일반특성

- **[성별]** <2020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한 종사자 87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0명(23.0%), 여성 67명(77.0%)이었음
- **[연령]**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32명(36.8%)이었으며 30대가 24명(27.6%), 20대가 13명(14.9%), 50대 10명(11.5%), 60대 7명(8.0%), 70대 1명(1.2%) 순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 응답자의 거주지를 6개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부내륙권 거주자가 가장 많은 32명(36.8%), 대전논산근교권 19명(21.8%), 중부권(백제) 9명(10.3%), 중부권(내포) 8명(9.2%), 북부해안권 7명(8.1%), 서남부권 5명(5.7%)으로 나타났으며, 6개 생활권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7명(8.1%)으로 확인되었음
- **[경력]** 활동경력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3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5~10년 미만 22명(25.3%), 3~5년 미만이 18명(20.7%), 1~3년 미만이 14명(16.1%)으로 나타났음
- **[종사영역]** 종사영역의 경우, 예술강사(진흥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명(6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 강사(주강사)가 11명(12.6%), 기획자가 8명(9.2%), 문화예술 강사(보조강사)가 4명(4.6%), 행정인력이 3명(3.5%)으로 확인되었음
-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질문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명(58.6%)이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5명(40.2%), 무응답이 1명(1.2%)으로 확인되었음
- **[전공]** 출신 전공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 전공 출신인 경우가 66명(7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이공계 7명(8.0%), 교육계 6명(6.9%), 사회계열 4명(4.6%), 경영경제가 2명(2.3%), 무응답이 2명(2.3%)으로 조사되었음
- **[소득]** 응답자의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월 100~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명(48.3%)이었으며, 월 200~300만원이 27명(31.0%), 월 100만원 미만이 12명(13.8%), 월 300~400만원 미만이 5명(5.8%)으로 확인되었음

<표 3-3> 종사자 일반특성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전체		87	100.0
성별	남성	20	23.0
	여성	67	77.0
연령	20대	13	14.9
	30대	24	27.6
	40대	32	36.8
	50대	10	11.5
	60대	7	8.0
	70대	1	1.2
거주지	북부내륙권	32	36.8
	북부해안권	7	8.1
	중부권(내포)	8	9.2
	중부권(백제)	9	10.3
	서남부권	5	5.7
	대전논산근교권	19	21.8
	타지역	7	8.1
활동경력	1년 미만	0	0.0
	1년~3년 미만	14	16.1
	3년~5년 미만	18	20.7
	5년~10년 미만	22	25.3
	10년 이상	33	37.9
종사영역	예술강사(진흥원)	60	69.0
	문화예술교육 강사(주강사)	11	12.6
	문화예술교육 강사(보조강사)	4	4.6
	기획자	8	9.2
	행정인력	3	3.5
	기타	0	0.0
	무응답	1	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보유 여부	예	51	58.6
	아니오	35	40.2
	무응답	1	1.2
출신전공	문화예술계	66	75.9
	교육계	6	6.9
	이공계	7	8.0

	경영경제	2	2.3
	사회학	4	4.6
	무응답	2	2.3
평균소득	월 100만원 미만	12	13.8
	월 100~200만원 미만	42	48.3
	월 200~300만원 미만	27	31.0
	월 300~400만원 미만	5	5.8
	월 400만 원 이상	0	0.0
	무응답	1	1.1

3) 문화예술교육 활동 일반특성

(1) 기관·단체

① 활동영역 (복수기재 가능)

- 설문에 응답한 기관·단체의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곳(31.4%)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시설 16곳(11.7%), 공연/전시 시설과 작은도서관이 각 14곳(10.2%), 학교가 13곳(9.5%), 평생교육기관(공공)이 10곳(7.3%)으로 확인되었음

<표 3-4> 기관·단체 활동영역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학교	13	9.5
공연/전시시설	14	10.2
도서관	7	5.1
작은도서관	14	10.2
문화보급전수시설	4	2.9
지역문화시설	16	11.7
평생교육기관(공공)	10	7.3
평생교육기관(민간)	8	5.8
사회복지시설	43	31.4

주민자치센터	3	2.2
기타	5	3.7
계	137	100.0

- 사회복지시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설문에 응답한 기관·단체 중 「지역 아동센터」의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외 응답자 중 지역문화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과 공연/전시시설,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기관(공공/민간)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기관·단체의 대표 장르와 연결 지어 보면, 주로 공연예술(연극·무용·국악·음악 등) 위주의 체험/실습형 혹은 강의/강좌형 프로그램과 융복합(통합) 프로그램이 운영·제공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학교에서의 활동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시설의 경우 학교와 지역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는 학교와 연계하여 「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거나,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체험 캠프」 운영 등 아동·청소년 대상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활동기간

- 응답한 기관·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인 경우가 53곳으로 전체의 67.1%로 나타났으며, 반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단 2곳으로 전체의 2.5%로 확인되었음

<표 3-5> 기관·단체 활동 기간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1년 미만	2	2.5
1년~3년 미만	15	19.0
3년~5년 미만	9	11.4
5년~10년 미만	22	27.9
10년 이상	31	39.2
계	79	100.0

- 활동기간과 연결지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시설에서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③ 종사자를 위한 전문성·역량 강화 활동

- 응답한 기관·단체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64곳(81.0%)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곳(19.0%)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6> 기관·단체 종사자를 위한 전문성·역량강화 활동 여부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예	64	81.0
아니오	15	19.0
계	79	100.0

- 전반적으로 기관·단체의 경우 종사자 대상의 전문성·역량강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부 워크숍의 주제(내용)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종사자의 전문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외부기관 워크숍이 40곳, 자체 워크숍을 하는 곳이 29곳, 기타 3곳으로 응답하였음

<표 3-7> 기관·단체 교육 방법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외부기관 워크숍	40	50.6
자체 워크숍	29	36.7
기타	3	3.8
무응답	7	8.9
계	79	100.0

④ 프로그램 진행 지역

- 응답한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진행 지역에 대한 물음에서는 1순위로 북부내륙권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전논산근교권이 15.2%, 중부권(내포)이 13.9%, 북부해안권이 12.7%, 중부권(백제)이 12.7%, 서남부권이 11.4%로 나타남

<표 3-8> 프로그램 진행 지역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북부내륙권	24	30.4
북부해안권	10	12.7
서남부권	9	11.4
중부권(내포)	11	13.9
중부권(백제)	10	12.7
대전논산근교권	12	15.2
무응답	3	3.7
계	79	100.0

- 이를 주소지와 비교¹⁵⁾해 보면, 대체로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자신들의 주소지를 벗어나 타 생활권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 프로그램 참여 대상

-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아동기(8~13세) 참여자가 2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기 17.9%, 성인 후기(50~64세)의 대상자가 14.2%, 노인 전기(65~74세)의 대상자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5) [주소지]북부내륙권 25곳(31.6%) > [진행지역]북부내륙권 24곳(30.4%), [주소지]대전논산근교권 12곳(15.2%) > [진행지역]대전논산근교권 12곳(15.2%), [주소지]중부권(백제) 13곳(16.5%) > [진행지역]중부권(백제) 10곳(12.7%), [주소지]중부권(내포) 8곳(10.1%) > [진행지역]중부권(내포) 11곳(13.9%), [주소지]북부해안권 11곳(13.9%) > [진행지역]북부해안권 10곳(12.7%), [주소지]서남부권 10곳(12.7%) > [진행지역]서남부권 9곳(11.4%)으로 나타났음

<표 3-9> 프로그램 참여 대상-생애주기별(복수응답, N=190)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영유아(출생~7세)	6	3.2
아동기(8~13세)	40	21.0
청소년기(14~19세)	34	17.9
성인전기(20~29세)	15	7.9
성인중기(30~49세)	25	13.2
성인후기(50~64세)	27	14.2
노인전기(65~74세)	24	12.6
노인후기(75세 이상)	16	8.4
무응답	3	1.6
계	190	100.0

-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만 3~5세 대상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아동기와 청소년기 대상의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로 융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유추됨
- 아동기와 청소년기 대상의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와의 지역연계가 이루어 지거나, 단체의 경우 「충남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 외 3,40대 성인중기와 생애전환세대(50~64세)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공연예술 위주의 체험/실습형, 강의/강좌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을 특정 대상별로 살펴보면, 사회(일반)의 경우가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지역아동센터) 20.3%, 학교 17.5%, 가족 과 사회(장애인)가 각각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 프로그램 참여대상-특정대상(복수응답, N=143)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학교	25	17.5
가족	17	11.9
사회(일반)	36	25.1
사회(장애인)	17	11.9
사회(근로자 단체)	3	2.1

사회(학교밖 청소년)	9	6.3
사회(군부대/의경부대)	1	0.7
사회(지역아동센터)	29	20.3
사회(북한이탈주민)	0	0.0
기타	3	2.1
무응답	3	2.1
계	143	100.0

- 사회(일반)의 경우 지역문화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과 공연/전시시설,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기관(공공/민간)에서의 활동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시설들에서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 역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장애인 대상의 활동 역시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회(지역아동센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지역아동센터」의 응답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체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학교밖 청소년, 군부대/의경부대 등)

(2) 종사자

① 단체·기관 소속 여부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가 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7.4%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1> 종사자의 단체·기관 소속 여부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예	76	87.4
아니오	11	12.6
계	87	100.0

- 이는 종사자 중 설문응답의 69.0%를 차지하는 예술강사(진흥원)들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으로 답변한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음

② 활동영역 (복수기재 가능)

- 종사자의 활동영역에 관한 응답에서는 기관·단체의 경우와 달리 '학교'에서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공연/전시시설' 17.0%, '지역문화시설' 11.3%로 확인되었음

<표 3-12> 종사자 활동영역(복수응답)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학교	74	41.8
공연/전시시설	30	17.0
도서관	3	1.7
작은도서관	1	0.6
문화보급전수시설	5	2.8
지역문화시설	20	11.3
평생교육기관(공공)	12	6.8
평생교육기관(민간)	10	5.6
사회복지시설	9	5.1
주민자치센터	11	6.2
기타	2	1.1
계	177	100.0

- 역시 활동영역에서 '학교'의 빈도가 높은 것은 예술강사(진흥원)의 응답률 때문이며, 이들의 경우 '학교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 '공연/전시시설' 및 '지역문화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평생교육기관(공공/민간)'에서의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학교 외 지역에서의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종사자의 활동영역을 거주지별로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대체로 높았으나, 중부권(내포)과 중부권(백제) 거주자의 경우는 다른 지역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공연/전시시설' 이나 '지역문화시설'에서의 활동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3> 종사자의 거주지별 활동영역(복수응답)

구분(N=177)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충남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학교	28	50.0	7	53.8	6	33.3	5	26.3	5	41.7	17	40.5
공연/전시시설	8	14.2	2	15.4	4	22.2	6	31.6	-	-	6	14.3
도서관	-	-	-	-	1	5.6	-	-	1	8.3	-	-
작은도서관	-	-	-	-	-	-	-	-	1	8.3	-	-
문화보급전시시설	3	5.4	-	-	-	-	1	5.3	-	-	1	2.4
지역문화시설	3	5.4	1	7.7	4	22.2	3	15.8	2	16.7	7	16.7
평생교육기관(공공)	2	3.6	1	7.7	1	5.6	1	5.3	2	16.7	1	2.4
평생교육기관(민간)	4	7.1	-	-	-	-	1	5.3	1	8.3	3	7.1
사회복지시설	4	7.1	-	-	1	5.6	-	-	-	-	3	7.1
주민자치센터	2	3.6	2	15.4	1	5.6	2	10.5	-	-	4	9.5
기타	2	3.6	-	-	-	-	-	-	-	-	-	-
계	56	100.0	13	100.0	18	100.0	19	100.0	12	100.0	42	100.0

③ 전업 활동 여부

- 전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4> 종사자의 전업 활동 여부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예	63	72.4
아니오	24	27.6
계	87	100.0

- 충남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전업 활동이 비율이 다소 높을 것을 알 수 있었음
- 성별로 전업 활동 여부를 확인해 보면, 여성의 전업 활동 비율(71.4%)이 남성 비율(5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5> 성별 전업 활동 여부

구분	남성	%	여성	%
전업활동	11	55.0	52	77.6

타직업병행	9	45.0	15	22.4
계	20	100.0	67	100.0

- 자격보유에 따른 전업 활동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있는 응답자의 전업 활동 비율이 자격이 없는 응답자의 전업 활동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보유에 따른 전업 활동 여부

구분	보유	%	비보유	%
전업활동	40	78.4	22	62.9
타직업병행	11	21.6	13	37.1
계	51	100.0	35	100.0

*무응답(1) 제외

- 전업 활동 여부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북부해안권 거주자인 응답자 전체가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7> 거주지별 전업 활동 여부

구분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충남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업활동	23	71.9	7	100.0	5	62.5	6	66.7	3	60.0	13	68.4
타직업병행	9	28.1	0	0.0	3	37.5	3	33.3	2	40.0	6	31.6
계	32	100.0	7	100.0	5	100.0	9	100.0	5	100.0	19	100.0

④ 시간당 강사료

- 응답자의 시간당 강사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응답자의 81.6%인 71명이 3~5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음

<표 3-18> 종사자의 시간당 강사료

구분	응답 현황	
	응답자 수	%

지급받지 않음	1	1.1
3만원 미만	3	3.5
3~5만원 미만	71	81.6
5~7만원 미만	5	5.8
7만원~10만원 미만	4	4.6
10만 원 이상	2	2.3
무응답	1	1.1
계	87	100.0

- 이는 예술강사(진흥원)들의 시간당 강사료 43,000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성별 강사료의 경우 남녀 동일하게 시간당 3~5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나, 7만원 이상 강사료를 받는 비율은 남성 응답자의 15.0%, 여성 응답자의 4.5%로 확인됨

<표 3-19> 성별 시간당 강사료

구분	남성	%	여성	%
지급받지 않음	1	5.0	0	0.0
3만원 미만	1	5.0	2	3.0
3~5만원 미만	13	65.0	58	86.5
5~7만원 미만	1	5.0	4	6.0
7만원~10만원 미만	2	10.0	2	3.0
10만 원 이상	1	5.0	1	1.5
무응답	1	5.0	0	0.0
계	20	100.0	67	100.0

- 종사영역에 따른 시간당 강사료는 다른 종사자보다 기획자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높은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20> 종사영역별 시간당 강사료

구분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주강사		문화예술교육 보조강사		기획자		행정인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급받지 않음	0	0.0	0	0.0	0	0.0	0	0.0	1	33.3
3만원 미만	0	0.0	0	0.0	2	50.0	1	12.5	0	0.0
3~5만원 미만	58	96.7	8	72.7	2	50.0	2	25.0	0	0.0
5~7만원 미만	2	3.3	1	9.1	0	0.0	0	0.0	2	66.7
7만원~10만원 미만	0	0.0	1	9.1	0	0.0	3	37.5	0	0.0

10만 원 이상	0	0.0	1	9.1	0	0.0	1	12.5	0	0.0
무응답	0	0.0	0	0.0	0	0.0	1	12.5	0	0.0
계	60	100.0	11	100.0	4	100.0	8	100.0	3	100.0

- 기획자의 경우, '예술강사(진흥원)' 활동 및 '재단 공모사업' 외에 문화예술교육시설 등에 초빙되어 강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소득

-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100~200만원의 소득인 경우가 42명으로 전체의 48.3%였으며, 월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명인 31.0%로 확인되었음

<표 3-21>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구분	응답자 수	%
월 100만원 미만	12	13.8
월 100~200만원 미만	42	48.3
월 200~300만원 미만	27	31.0
월 300~400만원 미만	5	5.8
월 400만 원 이상	0	0.0
무응답	1	1.1
계	87	100.0

- 성별 월평균 소득의 경우 남성 응답자의 55.0%, 여성 응답자의 64.2%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다소 높은 월평균 소득 구간에 있었음

<표 3-22> 종사자의 성별 월평균 소득

구분	남성	%	여성	%
월 100만원 미만	6	30.0	6	8.9
월 100~200만원 미만	5	25.0	37	55.2
월 200~300만원 미만	8	40.0	19	28.4
월 300~400만원 미만	1	5.0	4	6.0
월 400만 원 이상	0	0.0	0	0.0
무응답	0	0.0	1	1.5
계	20	100.0	67	100.0

- 응답자의 72.4%가 전업 활동자인 점을 감안할 때,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을 상향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부지원사업의 어려움으로 '전문강사의 수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및 개별 외부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단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제시하는 방안은 학교 및 종사자,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역량강화교육 필요)
-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활동 및 자율활동, 자유학기제, 방과 후학교 등의 활동에서 역시 '예술적 전문성과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양질의 전문강사 확보가 관건이라고 봤을 때,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교육 및 이를 통한 전문강사 DB를 구축하는 것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영역 간의 상호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볼 수 있음
- 「천안/아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축제 사업' 역시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 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DB 구축 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
- 한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보유 여부에 따른 월평균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표 3-23>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에 따른 월평균 소득

구분	보유	%	비보유	%
월 100만원 미만	6	11.8	6	17.0
월 100~200만원 미만	23	45.1	19	54.3
월 200~300만원 미만	18	35.3	8	22.9
월 300~400만원 미만	4	7.8	1	2.9
월 400만 원 이상	0	0.0	0	0.0
무응답	0	0.0	1	2.9
계	51	100.0	35	100.0

⑥ 소득수준 만족도

- 종사자의 소득수준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 평균은 5.2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4~5점을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1.6%로 확인되었음

<표 3-24> 종사자의 소득수준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응답자 수	%
1점 이하	1	1.1
2~3점	3	3.5
4~5점	71	81.6
6~7점	5	5.8
8~9점	4	4.6
10점	2	2.3
계	86	98.9.0

*무응답(1) 제외

- 성별 소득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은 4.0점, 여성의 만족도 평균은 5.5점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수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25> 종사자의 성별 소득수준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남성	%	여성	%
1점 이하	4	20.0	1	1.5
2~3점	4	20.0	8	12.0
4~5점	8	40.0	24	35.8
6~7점	3	15.0	27	40.3
8~9점	1	5.0	6	8.9
10점	0	0.0	1	1.5
계	20	100.0	67	100.0

- 연령대별 소득수준 만족도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대는 6.3점, 30대는 5.8점, 40대는 5.3점, 50대는 4.8점, 60대는 4.6점으로 확인되었음

<표 3-26> 종사자의 성별 소득수준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1점 이하	0	0.0	3	12.4	1	3.0	0	0.0	1	14.3
2~3점	0	0.0	1	4.2	6	18.8	2	20.0	3	42.8
4~5점	4	30.8	6	25.0	13	40.6	7	70.0	1	14.3
6~7점	5	38.4	12	50.0	10	31.3	1	10.0	2	28.6
8~9점	4	30.8	1	4.2	2	6.3	0	0.0	0	0.0
10점	0	0.0	1	4.2	0	0.0	0	0.0	0	0.0
계	13	100.0	24	100.0	32	100.0	10	100.0	7	100.0

- 활동경력별 소득수준 만족도는 경력이 길수록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력이 1~3년 미만은 5.9점, 3~5년 미만은 6.0점, 5~10년 미만은 4.5점, 10년 이상의 경력인 경우는 4.9점으로 확인되었음
- 경력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예술강사(진흥원)의 강사료 체계 때문으로, 경력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가 지급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강의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 및 차등 지급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표 3-27> 종사자의 경력별 소득수준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점 이하	0	0.0	0	0.0	0	0.0	4	18.2	1	3.0
2~3점	0	0.0	2	14.3	2	11.1	2	9.1	6	18.2
4~5점	0	0.0	2	14.3	5	27.8	9	40.9	16	48.6
6~7점	0	0.0	7	50.0	8	44.4	7	31.8	8	24.2
8~9점	0	0.0	3	21.4	3	16.7	0	0.0	1	3.0
10점	0	0.0	0	0.0	0	0.0	0	0.0	1	3.0
계	0	0.0	14	100.0	18	100.0	22	100.0	33	100.0

⑦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71명인 81.6%가 가입된 것

으로 확인되었고, 15명인 17.2%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28>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구분	응답자 수	%
예	71	81.6
아니오	15	17.2
무응답	1	1.2
계	87	100.0

⑧ 전문성 교육 혹은 역량 강화 활동 여부

- 종사자 본인의 전문성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의 67명인 7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표 3-29> 종사자의 역량 강화 활동 여부

구분	응답자 수	%
예	67	77.0
아니오	19	21.8
무응답	1	1.2
계	87	100.0

- 경력에 따른 역량 강화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 10년까지는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30> 경력에 따른 역량 강화 활동 여부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수	%	수	%	수	%	수	%	수	%
예	0	0.0	10	71.4	15	83.3	20	90.9	22	66.7
아니오	0	0.0	3	21.4	3	16.7	2	9.1	11	33.3
무응답	0	0.0	1	7.2	0	0.0	0	0.0	0	0.0
계	0	0.0	14	100.0	18	100.0	22	100.0	33	100.0

-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까지 본인의 전문성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문강사의 교육역량' 및 '학교 교육과정과 대상층의 이해도'와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워크숍의 유형과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호 간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의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사영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강사가 다른 유형의 종사자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31> 종사영역별 역량 강화 활동 여부

구분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주강사		문화예술교육 보조강사		기획자		행정인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예	45	75.0	10	90.9	4	100.0	6	75.0	1	33.3
아니오	14	23.3	1	9.1	0	0.0	2	25.0	2	66.7
무응답	1	1.7	0	0.0	0	0.0	0	0.0	0	0.0
계	60	100.0	11	100.0	4	100.0	8	100.0	3	100.0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자체 워크숍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32> 종사자의 전문성 또는 역량강화 활동 방법

구분	응답자 수	%
외부기관 워크숍	21	31.8
자체 워크숍	42	63.6
기타	3	4.6
계	66	100.0

*무응답 제외

⑨ 진행 프로그램 장르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주된 장르로는 공연예술이 56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형예술이 11명(12.6%), 시각예술과 융복합(통

합)이 각각 10명(11.5%)으로 나타남

<표 3-33> 종사자의 진행 프로그램 장르

구분	응답자 수	%
공연예술(연극, 무용, 국악, 음악 등)	56	64.4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화, 디자인, 만화 등)	10	11.5
조형예술(건축, 공예, DIY 등)	11	12.6
문학/비문학(인문학 포함)	0	0.0
융복합(통합)	10	11.5
계	87	100.0

- 이는 설문에 응답한 예술강사(진흥원)의 다수가 '학교 예술강사('음악' 및 '미술'을 제외한 8개 분야 선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선 기관·단체의 대표 장르 역시 공연예술(49.4%) 위주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장르별 특성은 공연예술인 것으로 확인¹⁶⁾되는 바 현장의 수요를 받아들여 이를 특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거주지별 종사자의 진행 장르를 보면,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대전논산근교권 거주 응답자는 공연예술 장르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음

<표 3-34> 종사자의 거주지별 진행 프로그램 장르

구분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근교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공연예술	23	71.9	5	71.4	4	50.0	5	55.6	1	20.0	12	63.2
시각예술	4	12.5	0	0.0	1	12.5	2	22.2	1	20.0	2	10.5
조형예술	1	3.1	2	28.6	0	0.0	1	11.1	2	40.0	4	21.1
문학/비문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융복합(통합)	4	12.5	0	0.0	3	37.5	1	11.1	1	20.0	1	5.2
계	32	100.0	7	100.0	8	100.0	9	100.0	5	100.0	19	100.0

16)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내 동아리활동 및 자율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에서의 주된 프로그램 장르가 '음악', '미술'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연예술(국악, 음악, 연극, 무용 등)에 대한 수요 및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도 '국악(24.7%)', '음악(21.9%)', '연극(10.1%)', '무용(6.1%) 등 공연예술 영역의 전공자 수가 62.8%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대별 종사자의 진행 장르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연예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형예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35> 종사자의 연령대별 진행 프로그램 장르

구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공연예술	11	84.6	16	66.7	20	62.5	6	60.0	2	28.6
시각예술	1	7.7	3	12.5	4	12.5	1	10.0	1	14.2
조형예술	0	0.0	1	4.2	6	18.7	2	20.0	2	28.6
문학/비문학	0	0.0	0	0.0	0	0.0	0	0.0	0	0.0
융복합(통합)	1	7.7	4	16.6	2	6.3	1	10.0	2	28.6
계	13	100.0	24	100.0	32	100.0	10	100.0	7	100.0

⑩ 프로그램 진행방식

- 종사자의 프로그램 진행방식으로는 복합형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험/실습형 24.2%, 강의/강좌형 19.5%, 표현/창작형이 9.2% 순이었음

<표 3-36> 종사자의 프로그램 진행방식

구분	응답자 수	%
강의/강좌형	17	19.5
체험/실습형	21	24.2
표현/창작형	8	9.2
관람형	0	0.0
복합형	41	47.1
계	87	100.0

- 복합형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예술강사(진흥원) 중 '학교 예술강사'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출신 전공별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예술 분야 전공 출신자의 경우에는 복합형을, 교육 분야 전공자는 강의/강좌형을, 사회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체험/실습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표 3-37> 종사자의 출신 전공별 프로그램 진행방식

구분	예술		교육		이공계		경영경제		사회학	
	명	%	명	%	명	%	명	%	명	%
강의/강좌형	10	15.2	4	66.6	1	14.2	1	50.0	1	25.0
체험/실습형	15	22.7	1	16.7	2	28.6	0	0.0	2	50.0
표현/창작형	6	9.1	0	0.0	2	28.6	0	0.0	0	0.0
관람형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형	35	53.0	1	16.7	2	28.6	1	0.0	1	25.0
계	66	100.0	6	100.0	7	100.0	2	50.0	4	100.0

⑪ 프로그램 진행 지역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순위 지역은 대체로 종사자의 거주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북부내륙권과 북부해안권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비율이 다른 생활권 거주자 대비 더 높았음

<표 3-38> 종사자의 거주지별 프로그램 진행 지역(1순위)

구분(n=80)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근교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북부내륙권	27	84.3	0	0.0	1	12.5	2	22.2	1	20.0	1	5.3
북부해안권	2	6.3	7	100.0	0	0.0	1	11.1	0	0.0	0	0.0
중부권(내포)	2	6.3	0	0.0	6	75.0	0	0.0	2	40.0	0	0.0
중부권(백제)	0	0.0	0	0.0	1	12.5	6	66.7	0	0.0	1	5.3
서남부권	0	0.0	0	0.0	0	0.0	0	0.0	2	40.0	0	0.0
대전논산근교권	0	0.0	0	0.0	0	0.0	0	0.0	0	0.0	15	78.9
타지역	1	3.1	0	0.0	0	0.0	0	0.0	0	0.0	2	10.5
계	32	100.0	7	100.0	8	100.0	9	100.0	5	100.0	19	100.0

*타지역 거주자 제외

-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순위 지역임에도 본인의 거주지 외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는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소득)'와 '폭넓은 교류 및 프로그램 확장성 모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2,3순위 지역을 합산했을 경우, 종사자들의 타 지역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응답자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면, 서남부권 거주자와 대전논산근교권 거주자, 중부권(내포) 거주자의 다른 지역 활동비율이 각각 58.3%, 57.4%, 57.2%로 거주지 외 지역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대체로 거주지 외에는 두드러지는 활동지역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응답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대전논산근교권 거주자의 경우에서만 중부권(백제)의 활동(23.4%)이 거주지 다음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생활권 내에서도 활동영역의 수에 편차가 있어 종사자의 활동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추후 연구과제에서는 '생활권별 활동영역 수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생활권별 문화예술교육 활동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39> 종사자의 거주지별 프로그램 진행 지역(1+2+3순위)

구분(n=168)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내포)		중부권(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근교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북부내륙권	35	64.8	0	0.0	3	14.3	2	9.1	1	8.3	2	4.3
북부해안권	4	7.4	11	91.7	1	4.8	2	9.1	2	16.7	1	2.1
중부권(내포)	8	14.8	1	8.3	9	42.8	1	4.5	2	16.7	1	2.1
중부권(백제)	3	5.6	0	0.0	4	19.0	13	59.1	0	0.0	11	23.4
서남부권	0	0.0	0	0.0	3	14.3	0	0.0	5	41.7	3	6.4
대전논산근교권	0	0.0	0	0.0	0	0.0	0	0.0	1	8.3	20	42.5
타지역	4	7.4	0	0.0	1	4.8	4	18.2	1	8.3	9	19.2
계	54	100.0	12	100.0	21	100.0	22	100.0	12	100.0	47	100.0

*타지역 거주자 제외

4) 2019년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1) 기관·단체

① 2019년 진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020년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에 응답한 79개 기관·단체가 2019년에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는 총 1,061개로 파악되었음. 이는 응답하지 않은 3개 기관·단체를 제외하면 1곳당 평균 1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관·단체의 평균 진행 프로그램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북부내륙권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진행이 평균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논산근교권 15개, 북부해안권과 중부권(백제)이 각각 6개로 확인되었음

<표 3-40> 2019년도 진행 프로그램 수

구분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 (내포)	중부권 (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 근교권	계
응답수	24	10	13	9	8	12	76
프로그램 수	696	59	52	53	21	180	1,061
평균	29	6	4	6	3	15	14

*무응답(n=3) 제외

- 프로그램 수에서도 생활권별 편중이 심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관·단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전체 프로그램 수의 6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단/재단/전문예술)법인이 18.9%를 차지하고 있었음. 반면 사설(임의)단체는 3.6%에 그쳐 국공립 또는 전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평균 이하에 그치고 있었음

<표 3-41> 2019년도 진행 프로그램 수

구분	국공립	법인	사설(임의)단체	기타	계
----	-----	----	----------	----	---

응답수	14	23	16	23	76
프로그램 수	691	201	38	131	1,061
%	65.1	18.9	3.6	12.4	100.0
평균	49	9	2	6	14

*무응답(n=3) 제외

- 하지만 생활권별로 국공립 시설(총 14곳)의 분포¹⁷⁾를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 내에서도 진행 프로그램 수에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공립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시행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기초 및 생활권별 공무원 문화예술교육 지도자 양성」 실행과제와 관련이 있음)
- 또한 사설(임의)단체의 경우, 정부부처 및 충청남도(재단 주관)에서 주최하는 지원사업 외에 뚜렷한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동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이들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및 '축제사업'으로의 활동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수 있음
- 한편 2019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을 추진(참여)방식으로 구분해 본 결과, 자체 기획이 82.2%, 공모사업 지원 방식이 10.5%, 컨소시엄이 7.3%로 확인되었음

<표 3-42> 기관·단체의 사업 추진방식

구분	응답 수	%
공모사업 지원	116	10.5
자체 기획	905	82.2
컨소시엄	80	7.3
계	1,101	100.0

17) 국공립 시설 총 14곳을 생활권별로 구분하면, 북부내륙권 3곳, 북부해안권 1곳, 중부권(내포) 2곳, 서남부권 3곳, 대전·논산근교권 5곳이었음.

국공립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에도 중부권(내포)과 서남부권의 진행 프로그램 수가 적다는 것은 해당 국공립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거나,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현재의 상황으로는 북부내륙권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중부권(내포)와 서남부권은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자체가 적어 활동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기관·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또는 법인의 경우 자체 기획 방식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설(임의)단체는 공모사업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43> 2019년도 진행 프로그램 수

구분	국공립		법인		사설(임의)단체		기타	
	프로그램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공모사업지원	29	4.0	32	13.8	28	59.6	26	25.5
자체 기획	622	86.5	190	81.9	18	38.3	75	73.5
컨소시엄	68	9.5	10	4.3	1	2.1	1	1.0
계	719	100.0	232	100.0	47	100.0	102	100.0

- 2019년 프로그램 진행 시 기관·단체의 연계·협력 형태로는 '프로그램 공모(발주 또는 응모)'라고 응답한 기관·단체가 전체 응답기관의 43.0%로 가장 많았음. 기타의 경우 '비공식 참여' 혹은 '수혜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참여'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3-44> 타기관 연계·협력 형태

구분	응답 수	%
프로그램 공동 기획	11	13.9
프로그램 공모(발주 또는 응모)	34	43.0
홍보업무지원	5	6.3
기타	16	20.3
무응답	13	16.5
계	79	100.0

- 따라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체계는 기관·시설의 경우 자체 기획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단체는 주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은 기관·시설 및 단체 모두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② 인력

- 2019년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부 담당 인력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74곳의 총 내부 인력은 16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응답 기관·단체 1곳당 평균 2.3명임
- 기관·단체 주소지별로 확인해 보면 서남부권이 1곳당 평균 2.7명, 북부내륙권이 2.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의 네 곳은 평균보다 낮은 내부 인력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45> 기관·단체 주소지별 내부 인력 현황

구분(n=168)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 (내포)	중부권 (백제)	서남부권	대전논산 근교권	계
응답기관	23	10	14	8	8	11	74
내부인력	60	22	16	24	27	20	169
평균	2.6	2.2	2.0	2.0	2.7	1.8	2.3

- 기관·단체의 분류별로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내부 담당 인력이 평균 3.1명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예술(교육) 기관·시설이 2.1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46> 기관·단체 분류별 내부 인력 현황

구분(n=168)	문화예술(교육)기 관/시설	문화예술(교육)단 체	기타	계
응답기관	58	16	-	74
내부인력	120	49	-	169
평균	2.1	3.1	-	2.3

- 기관·시설의 경우, 국공립 시설 및 법인을 중심으로 비교적 근로 여건은 안정적인 반면 내부 인력 1인당 업무량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단체의 경우 내부 인력 수는 많지만, 근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기관·단체의 유형별로는 사설(임의)단체의 평균 내부 인력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사단/재단/예술전문)이 2.4명이었으며, 국공립 기관·단체가 1.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프로그램 수와 내부 인력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응답한 국공립 기관·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인력

대비 진행 프로그램 수 비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단체 보다 많았음

<표 3-47> 기관·단체 유형별 내부 인력 현황

구분(n=168)	국공립	법인	사설(임의)단체	기타	계
응답기관	12	23	16	23	74
내부인력	21	56	43	49	169
평균	1.8	2.4	2.7	2.2	2.3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인력이 있는지의 물음에서는 전체 응답 기관·단체 79 곳 중 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을 한 6곳을 제외한 73곳 중 16곳이 확보하고 있었고, 57곳은 자격보유 인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한 16곳에서 확보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보유 인력은 총 38명이었으며, 이는 응답 기관 1곳당 평균 2.4명으로 파악되며, 없다고 응답한 기관·단체를 포함하면 1곳당 평균 0.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48> 기관·단체의 타기관 연계·협력 형태

구분	응답 수	%
있다	16	20.3
없다	57	72.2
모름	4	5.0
무응답	2	2.5
계	79	100.0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의 수가 572명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활동 수행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인력자원 중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후 현장 투입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필요한 상황임

(2) 종사자

① 2019년 프로그램 참여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가 2019년에 소속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는 총 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응답자 평균 3.8개에 해당함
- 프로그램 참여 건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2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6.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5건이 31.0%로 확인되었음. 반면 1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은 10.3%로 조사되었음

<표 3-49> 소속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2019년도)

구분	응답 수	%
없음	9	10.3
1~2건	32	36.8
3~5건	27	31.0
6~9건	3	3.5
10건 이상	7	8.1
무응답	9	10.3
계	87	100.0

- 협력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건수의 경우(응답자 평균 3.0개에 해당), 1~2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9.1%로 확인되었으며 3~5건인 경우가 16.1%로 나타남. 반면 협력기관 구성원으로는 참여한 건수가 없다고 한 응답도 23.0%로 확인되었음

<표 3-50> 협력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2019년도)

구분	응답 수	%
없음	20	23.0
1~2건	34	39.1
3~5건	14	16.1
6~9건	3	3.4
10건 이상	5	5.8
무응답	11	12.6
계	87	100.0

- 강사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참여한 건수로는 (응답자 평균 2.9개에 해당) 대체로 5건 이하의 응답이 많은 가운데 1~2건이라고 응답한 종사자가 가장 많은 28명(32.2%)을 차지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3명(26.4%), 3~5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명(17.2%)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51> 강사 지원 공모 선정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2019년도)

구분	응답 수	%
없음	23	26.4
1~2건	28	32.2
3~5건	15	17.2
6~9건	3	3.5
10건 이상	7	8.1
무응답	11	12.6
계	87	100.0

- 개인적으로 제안을 받아 참여한 건수로는 (응답자 평균 2.3개에 해당) 1~2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명(41.4%), 없다는 응답은 23명(26.4%), 3~5건이라고 한 경우가 12명(14.9%) 순으로 확인됨

<표 3-52> 개인적 제안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2019년도)

구분	응답 수	%
없음	23	26.4
1~2건	36	41.4
3~5건	12	14.9
6~9건	3	3.5
10건 이상	4	4.6
무응답	8	9.2
계	86	100.0

- 종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방식을 살펴보면, 소속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평균 3.8개)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았음(평균 3.0개)
- 반면, 공모에 지원하여 참여한 경우(평균 2.9개)와 개인적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경우(평균 2.3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5) 문화예술교육 정책·제도에 관한 인식

(1) 우선 지원 과제

- 충남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남문화재단(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한 물음에서는 기관·단체의 응답과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의견이 대체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는데, '예산 및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기관·단체가 전체 응답의 24.1%,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체의 27.6%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다음으로는 기관·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급 지원(16.5%)'과 '전담 인력 확보(16.5%)'를 꼽았고,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역량강화(17.2%)'와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급지원(14.9%)'을 언급하였음
- 특기할 만한 부분은, '문화예술 강사 역량 강화' 항목과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의 경우, 기관·단체보다 종사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의 응답이 확인되었다는 점임

<표 3-53> 우선 지원 과제

구분	기관·단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전담 인력 확보	13	16.5	3	3.5
문화예술교육 강사 역량 강화	1	1.3	15	17.2
문화예술교육 강사 수급 지원	13	16.5	13	14.9
기간/단체별 가용프로그램 확보	5	6.3	2	2.3
프로그램 교재, 자료 확보	2	2.5	4	4.6
설비/장비 등 기반 확보	1	1.3	1	1.2
교육공간 확보	2	2.5	1	1.2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4	5.1	0	0.0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2	2.5	6	6.9
예산 및 재정의 확보	19	24.0	24	27.6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	6	7.6	4	4.6
프로그램 홍보 지원	0	0.0	2	2.3
문화예술교육 취지·목적 인식	5	6.3	5	5.7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	1	1.3	7	8.0
무응답	5	6.3	0	0.0

계	79	100.0	87	100.0
---	----	-------	----	-------

- 우선 지원 과제에서 언급된 '예산 및 재정의 확보'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초 현황 조사>에서 파악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기관·시설의 자체 기획 비율, 시설·단체 대상의 공모 지원사업 예산 중 도비의 상대적인 책정액 부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관·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와 설비/장비의 확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단체 및 종사자의 경우는 공모 지원사업 확대 등 프로그램 개설 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 하나 의미 있는 답변은 기관·단체 및 종사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급 지원'을 언급한 점인데, 이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제공 주체 모두 수급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간 소통 부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그 외 기관·단체에서 언급한 '전담인력 확보'의 문제는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내부 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고,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는 자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의 언급은 응답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층 자체가 적은 충남도의 상황을 반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층을 충분히 확보한 도심지역과 다르게 도내 중부권(내포) 및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수요층이 적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활동 자체가 저조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수행 단체 또는 종사자가 생존 또는 역량 강화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까지 새로운 활동처 모색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낳게 됨. 결과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역량 강화 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 하나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점은 '교육공간 확보' 및 '설비/장비 등 기반 확보'

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었음. 이는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기반시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외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종합계획」 내 실행과제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확충이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실행 예산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 상황을 반영한 계획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오히려 지금은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서 충남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종사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태계 정상화의 노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2)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충남 도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이 1~2개라고 응답한 단체는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행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2개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이 3곳, 3~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곳이 4곳이었음

<표 3-54> 충남도 내 단체의 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수

구분	시설(개)	프로그램(개)
없음	1	2
1~2개	7	3
3~5개	3	4
6~9개	-	1
10개 이상	2	-
응답 수	13	10

*동일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복 산입하지 않음

*무응답 제외

- 충남 도내 프로그램 진행 시설은 총 149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산술적으로 보면

응답한 단체 1곳당 평균 약 12개임. 하지만 응답 단체 중 특정 2곳¹⁸⁾의 프로그램 진행 시설의 수가 다른 단체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단체의 프로그램 진행 시설 평균값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 2곳을 제외한 프로그램 진행 시설 평균은 1.7개로 확인됨)

- 프로그램 운영 수의 질문에 응답한 10개 단체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28개(평균 2.8개)로 조사되었음

<표 3-55> 충남도 내 단체의 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수

구분	시설(개)	프로그램(개)
현황	19	28
평균	1.7	2.8

- 활동하고 있는 시설 수와 비교하면 프로그램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된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본 조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시설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았음)
- 요약하면 충남 도내 단체 중 다수가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관여하는 시설 수 및 프로그램 수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설은 202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응답자 기준 1인 평균 2.4개 정도의 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63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56> 종사자의 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수(현재)

구분(개)	시설	프로그램
응답자 수	83	76
운영현황	202	163

18) 천안시(북부내륙권) 내 특정 단체 한 곳이 “30개”라는 응답을 하였고, 천안시(북부내륙권) 내 또 다른 단체가 “100개”라고 응답을 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참여 활동 및 행사 진행을 모두 고려한 응답이라고 판단됨. 예를 들어 예술단의 경우, 파견 및 초청 공연 수를 모두 기입한 응답일 수 있음

평균	2.4	2.1
----	-----	-----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한 종사자 중 72명 대부분이 문화예술교육시설(학교 포함)에서 1개 프로그램 이상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25명, 34.7%)의 경우 3개 프로그램 이상¹⁹⁾에 참여하고 있었음 (평균 3.9개)
- 역량이 검증된 일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시설에서 중복 활동을 수행하며 개인별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들의 월 평균 소득²⁰⁾은 종사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수치를 보였음

② 타지역 활동 여부

- 타지역 활동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 단체의 2곳(14.3%)만이 타지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특성상, 타 지역에서의 공모사업 선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충남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현재 단체 한 곳당 평균 2.8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도내 프로그램 수의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의 경우에는 단체보다는 활동지역의 제한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응답자의 37.2%인 32명이 타지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3개 프로그램 이상에 참여하는 종사자 25명 중 타 지역 활동까지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9명이었고, 이들의 경우 월 평균 소득²¹⁾에서 전체 종사자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음
- 결국 충남 도내를 위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보다 다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타 지역에서의 활동까지를 수행하는 일부 종사자(9명)의 경우가 더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경제적인 소득 역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19) 설문에 응답한 종사자 87명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 72명의 참여 건수를 살펴보면, 1~2개(47명), 3~5개(23명), 6~9개(2명)의 분포를 보였음

20) 3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5명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100만원 미만 4명(16.0%), 100~200만원 미만 10명(40.0%), 200~300만원 9명(36.0%), 300~400만원이 2명(8.0%)으로, 전체 응답자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1)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종사자 9명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 3명(33.3%), 200~300만원 4명(44.4%), 300~400만원이 2명(22.2%)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경제적 소득 및 개인별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희망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으로, <기초 현황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도내 문화예술교육시설의 활동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부족한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단체 및 종사자들의 활동처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7> 타지역 활동 여부

구분	단체(기관·시설 제외)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응답 수	%	응답 수	%
예	2	14.3	32	37.2
아니오	12	85.7	54	62.8
계	14	100.0	86	100.0

*타지역 활동 여부에 관한 무응답 제외

③ 활동지역 확대 의향

- 문화예술교육 활동지역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기관·단체 응답자의 46.2%가 확대 의향이 있다고 하였지만, 종사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5.5%가 확대 의향이 있다고 하여 지역적 제약에 대한 기관·단체와 종사자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58> 활동지역 확대 의향 여부

구분	단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응답 수	%	응답 수	%
예	6	46.2	55	65.5
아니오	7	53.8	29	34.5
계	13	100.0	84	100.0

*무응답(n=4) 제외

- 타 지역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종사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원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넓은 교류 또는 프로그램 확장성 모색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음

<표 3-59> 종사자의 활동지역 확대 필요 이유

구분	응답 수	%
경제적 이유(소득)	19	38.0
소통·교류 확대	18	36.0
거주지 접근성	8	16.0
개인 역량 강화	3	6.0
기타	2	4.0
계	50	100.0

- 단체가 타 지역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수혜지역', '지역 교류' 또는 '활동 경험' 등의 확대라는 응답이 있었음

6) 설문분석 총평

(1) 시사점

- 본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으로는, 우선 기관·시설 의존 형태의 활동 비율이 높다는 점이었음. 이는 2019년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추진(참여)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체 기획(82.2%)²²⁾ 비율 대비 공모사업(10.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종사자의 경우 시설 혹은 단체부터 개인적인 제안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평균 2.3개)가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
- 이는 기관·시설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를 선발 혹은 초빙하는 상황으로 충남 도내 단체 및 종사자의 활동 현황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음
- 물론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기초문화재단의 활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방향>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을 것임
- 결과적으로 단체 및 종사자 경우, 연간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지 않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음. 따라서 종사자들의 경우, 충남도를 벗어나

22) 이마저도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초 현황 조사> 결과, 적어도 사회문화예술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수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었음

타 지역으로의 활동영역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충남 도내 '단체 및 종사자들의 역량 미달'이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종사자의 경우,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 과제'로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17.2%)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었음. 단체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교육 등 이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로서는 활동 시설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현재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도민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전체 참여자 수의 확대를 유도하고, 단체 및 종사자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등 도내 기관·시설 및 단체, 종사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2) 방안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공모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충남문화재단」이 시행하는 공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 역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기반 시설 구조변경'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창출'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예산 운영의 일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충남 도내 생활권별 활동 주체들이 협력사업 또는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버넌스(협의회 등)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유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기획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수행 기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실행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을 도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매개자 상호 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온라인)'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플랫폼 내 종사자 등록제도 활성화 및 관리, 교류행사, 창업 또는 교류 지원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운영(오프라인) 등 다양한 정보 공유 위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문화공간의 등의 공간 기반의 경우, 신규 시설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모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또한 종사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교육)의 개발'을 추진하여 광역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충남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심층 인터뷰 (FGI)

1)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Focus-Group Interview, FGI)은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임
-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 충남 관내 기관·단체 종사자 및 참여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세부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의 실재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의거, 당초 대면방식에서 영상인터뷰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 인터뷰 대상은 크게 3그룹으로 구성했는데, 운영 주체인 기관·단체 종사자 및 참여강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2) 대상자 선정 및 진행 절차

- 대상자 선정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심층인터뷰를 희망하는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령, 지역,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총 5명을 선발하였음
- 대상자 선정 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여 추진하였음
- 선발기준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로 구분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하였으며, 종사자의 경우 활동연수, 지역별, 장르별 활동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음
- 시설 및 단체 관계자의 선정 기준은 시설유형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 주제인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지원체계 관련성, 관리자 또는 실무자

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인터뷰 전, 연구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심층인터뷰 의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사전에 배포하여 인터뷰 진행시 논의할 내용을 조율하였음
-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및 지원체계 개선,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과 '충남문화재단의 역할 및 방향성', '충남 권역의 생활권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인터뷰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종사자로 구분하여 2회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일정 조율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인원은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하여 총 4회 실시하였음

<표 3-60> FGI 연구 참여자 명단

구분	참여 유형	성명	성별(나이)	소속	활동(거주) 기간	거주지
참여자1	시설관계자	임○○	남(60대)	천안문화의전당	10년 이상	천안시
참여자2	시설관계자	김○○	여(40대)	다올책사랑방	15년8개월	홍성군
참여자3	단체관계자	정○○	남(30대)	단예동아트센터	8년	천안시
참여자4	종사자	박○○	여(40대)	예술강사	8년9개월	계룡시
참여자5	종사자	이○○	여(40대)	예술강사	16년	세종시

- [1차 인터뷰] - 일시 : 2020년 11월 14일(목) 11:00 - 13:00
 - 방식 : 서면, 유선통화
 - 대상자 : [기관단체] 참여자1
 - 연구자 : 연구진 1명
- [2차 인터뷰]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7:00 - 19:00
 - 방식 : 서면, zoom 화상인터뷰
 - 대상자 : [참여강사] 참여자2
 - 연구자 : 연구진 총 4명
- [3차 인터뷰] -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19:00 - 21:00
 - 방식 : 서면, zoom 화상인터뷰

- 대상자 : [참여자] 참여자3, 참여자4
 - 연구자 : 연구진 총 4명
- [4차 인터뷰] -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19:00 – 21:00
- 방식 : 서면, zoom 화상인터뷰
 - 대상자 : [참여자] 참여자5
 - 연구자 : 연구진 총 4명

(3)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 분석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 및 정책, 기획·운영 등 관련 분야 경험 10년 이상인 연구원 3명을 주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이들 모두 질적 연구 및 다양한 연구 경력을 통해 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임
- 인터뷰 시간은 그룹 당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연구원 3인이 매 시간을 함께 참여하였음. 선임연구원 1명은 사회를 맡고 연구원 2인은 각각 녹취 및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기록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본 인터뷰에서는 관계자들의 종사 유형을 토대로 충청남도 권역 간 지역 문화예술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도내 종사자의 경우 지역 내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녹음 내용을 전사한 인터뷰 내용 기록물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음. 인터뷰 자료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차 모임에서 모든 연구진이 모여 분석함으로써 편향적 해석의 오류를 줄였고,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의견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자료를 연구진 각자가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연구진이 상호 검토를 한 후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자료를 추출하였음

2) 분석결과

- 심층 인터뷰(FGI) 과정에서 다룬 주된 내용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응답자들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재질문하는 형태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광역-기초센터의 협력망이 구축된 후, 광역센터로서 「충남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논의되었고, 또한 기초센터가 담당해야 할 기초 단위 사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종합계획 내 실행과제의 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내용적인 측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답변이었음

(1) 인터뷰 1차 (기관/시설 관계자)

①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참여자1이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담인력 확보'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급 및 지원', '예산 및 재정의 확보'였음.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기관단체 종사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음
- 우선 '전담인력 확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시설 안에서 단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 인력이 아니라, 문화재단 내에서 행정 경험을 수행했거나, 커리큘럼 구성 능력도 갖추고, 전문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배치를 언급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질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이나, 더 나아가 기관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단체 내 전담인력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급 및 지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10회차 이상의 학기별 강좌를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데, 강사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을 초빙할 수 있는 강사로 등의 문제가 활성화
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었음

- 무엇보다 참여자1이 종사하고 있는 천안 지역 아카데미의 경우, 자생성을 기반으
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천안을 제외한 당진, 서산, 공주, 부여, 논산 등 인구
10만 내외의 시군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강사 수급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충남문화재단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
급하고 있었음
- 또한 '예산 및 재정 확보'의 경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과 코로나 이
후 언택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의 소모, 영상 및 음향 등 필수적인 시스템
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과 같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비용
을 언급하는 것이었음
- 또한 '예산 및 재정이 확보'된다면 이를 통해 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강사의 강사로
지원이나 문화 커리큘럼을 운영할 시, 시·군 문화재단에 베네핏을 제공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② 충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 다음으로는 '충남문화재단(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취해야 할 문화예술교육
운영방향 중 지원체계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참여자1이 제기한 내용은 '상
호협력 및 지원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능력개
발의 기회 제공',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지원' 등이었음
-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의 원활한 구축'은 앞서 언급한 '전문인력 확충' 및 '강사 수
급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 역시 앞서 언급한 인
력을 갖추기 위해 재단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이 기성제품을 찍어내듯千篇일률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판
한 것으로,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문화자원의 히스토리가 담긴 특화된

내용이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의 정신과 맥락을 담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자부심이 형성될 수 있는 특징적인 교육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③ 충남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방향

- 그 외 '충남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한 내용은 '지역문화 교육기관과의 연구 소통'과 '교류 협력 기회의 증진'이었음
- '지역문화 교육기관과의 연구 소통'은 지역 내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향토문화 예술사적지 등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었음
- '교류 협력 기회 증진'의 경우는 현재까지 설립된 충남 도내 5개 문화재단 외에 서천이나 서산 등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행정적인 네트워킹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교류 협력 기회의 증진을 통해 선진 아카데미 사례나 교육을 연구할 수 있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언급이었음

④ 충남 권역 구분에 관한 의견

- 권역별 구획 정리와 관련해서는 천안, 아산, 당진 등을 하나로 연계한 북부권과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 벨트를 하나로 연계하고, 또한 공주나 부여, 계룡 등 남부권을 하나의 벨트로 형성하는 것이 원활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 무엇보다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역별 문화를 구분하거나 특색을 형성하기에 용이할 것이라는 언급이었음

(2) 인터뷰 2차 (기관/시설 관계자)

①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공모사업 활성화)

- 참여자2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공모사업의 활성화(예산 및 재정의 간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원(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들 수 있었음
- 우선 '공모사업 활성화'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도서관과 같은 민간기관은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의 범위 밖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공모사업 지원'임을 언급하고 있었음
- 하지만 2021년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선정단체 수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민간기관을 위한 간접적인 예산지원의 방법으로 중앙정부 주최의 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지원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음
- 또한 공모사업 외에도 민간기관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특히 '강사료 지원' 방식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강사진의 경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강사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안임을 언급하고 있음
-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들의 교육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동반된다면 지역 내 부족한 강사 인력풀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②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홍보 지원, 강사역량강화)

- 참여자2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또 다른 내용은

‘프로그램 홍보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였음

- 우선 ‘프로그램 홍보 지원’은 충남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다 원활한 참여자 모집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이 있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예술가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코로나 19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강사 및 예술가들에게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접근방법을 소개하는 강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로사항

- 한편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부족’, ‘기관·단체별 가용 프로그램 수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음
- 우선 ‘문화예술교육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부족’은 ‘충남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획자 양성과정과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한 현상을 지적하는 언급이 있었음
-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부족’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위한 단체 구성 및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의 부족 현상이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었음
- 또한 ‘기관·단체별 가용 프로그램 수의 부족’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 프로그램 수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거주지역 주변의 프로그램 활동 정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음

④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 '충남문화예술교육이 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사항으로는 역시 '문화시설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음. 이는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 동아리를 포함, 충남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충남문화재단이 공유공간 마련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음

⑤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

-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의 역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육성 기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었음
- 우선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동아리들의 구심으로서 「충남문화재단」이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 및 매개체로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언급이었음
-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예산 및 재정 지원' 외에 15개 시·군별로 1곳씩의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및 연습공간, 장비사용,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지원방식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안을 제안하고 있었음
- 또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육성 기관'의 역할은 타 지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모사업 역시 3~5년 간 지원하는 장기지원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음

⑥ 충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 「충남문화재단(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취해야 할 문화예술교육 운영방향 중 지원체계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참여자2가 제기한 내용은 위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언급한 '공모사업 활성화'였음 (위 사항과 동일

한 내용이기애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음)

⑦ 충남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공모사업의 운영방향

- 충남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역민의 의견이 프로그램 구성에 여과 없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혹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공모사업이 설정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운영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었음
- 특히 프로그램 구성과정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만의 특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고 있었음
-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지역만의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지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적인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음

(3) 인터뷰 3차 (단체대상)

①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참여자3이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 역시 '예산 및 재정의 확보',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이었음
- 우선 '예산 및 재정의 확보'에서는 앞선 참여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며 단체를 유지해야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활동처로 기능한다는 점이었음
- 따라서 기존 공모사업과 같이 미리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결과가 예측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기보다는 해당 단체들이 평소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거나, 새로운 창업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범위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었음
- 물론 이와 같은 언급은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틀을 벗어난 단체 입장의 주장이었지만, 공모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앞선 참여자2의 언급과 함께 경청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음
- 또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공공기관의 인력들이 해당 업무영역에서 보다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예를 들어 'e-나라도움 시스템'의 등록 및 사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경우, 문화예술교육단체 담당자보다 관련 내용을 더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여러 담당자와 중복 대화를 나누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었음

②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로사항

- 한편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역시 '예술단체들의 활동공간 및 교육공간, 시설, 장비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음
-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교육공간 및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예술단

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서 충남 도내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음

③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 '충남문화예술교육이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사항으로는 역시 '기반시설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음
- 이는 앞선 참여자2의 언급과 같은 사항으로,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회의 및 워크숍 진행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이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역시 공유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었음

④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

-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 기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었음
- 이는 충남 도내 다양한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충남문화재단」 역시 지금처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음

⑤ 충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 그 외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문화재단」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지원체계를 질문한 결과,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활동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을 언급하고 있었음
- 우선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는 충남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이들이 보다 실험적인 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및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 또한 '활동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의 강사로 정체를 지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 강사

인력풀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충남의 경우, 기존 인력들의 타 지역 이탈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과 혜택 제공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⑥ 충남 권역 구분에 관한 의견

- 반면 권역별 구분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지역의 특성별로 권역을 구분하는 것은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타겟이 분명해 진다는 점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참여자3의 경험상 지역별 구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에 맞춰 구성하는 점은 좋았지만, 굳이 분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답변을 보이고 있었음

⑥ 종사 영역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여부

- 참여자3에게 설문항목에서 질문했던 '종사영역의 전문성교육 혹은 역량강화교육의 실시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주로 외부기관의 워크숍을 통해서 활발하게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특성상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워크숍과 문화예술교육 외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워크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⑦ 충남권역 외 타 지역 활동 여부

- 또한 설문항목에서 질문했던 '충남권역 외 타 지역에서의 활동 여부와 선호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자신들이 타 지역 활동 및 타 지역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활동지역(천안)의 '일감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있었음
- 물론 충남권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자체는 충분하지만, 그만큼 충남권역

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수 또한 많은 상황이고, 자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들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만으로는 단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타 지역 선호'의 주된 이유라고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참여자3이 소속된 문화예술교육단체 역시 자신들의 활동지역인 천안 외에도 아산이나 평택, 대전, 청주, 세종 등 인근 지역에서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3) 인터뷰 4차 (종사자 대상)

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 참여자4가 언급한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예총의 인식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음(예술적인 측면의 활동 지향). 이는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장애요인이 될 뿐더러 예술강사들의 학교 교육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음
- 또한 충남 도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의 교육 수요가 다를 뿐더러 프로그램 제공의 측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음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마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테면 도심지역의 경우 거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실수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단위의 활동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였음
- 참여자5는 지역마다 문화예술교육시설 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편차 및 시설의 활동목표에 따라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와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마다의 예산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열악한 운영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음

②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참여자4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강사 수급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의 확대'였고, 참여자5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충남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의 명확성', '문화예술교육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 이었음
- 우선 '문화예술교육 강사 수급을 위한 지원'에서는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교육 강사들의 활동처 수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음

- 참여자 4는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강사 및 기획자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이 대전이나 세종 등 본인이 콘텐츠 개발만 하면 충분히 수요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활동처를 옮기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었음
- 그 이유는 충남도에 비해 인근 대전, 세종에서의 강사 지원과 활동처 조달이 원활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대전,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활동이 중첩되면서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남 도내 예술강사 및 기획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강사활동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참여자4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반복 수강의 형태가 나타나는 문화예술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 및 일반인 대상의 저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참여자 4는 이를 위해 우선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자세한 활동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비교적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룰데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안하고 있었음
- 한편 참여자5는 우선 '충남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의 명확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천안과 홍성 등의 북부지역에 비해 공주, 부여, 논산 계룡 등 남부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각종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정보 제공 및 문화재단, 예총의 지원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음
- 특히 정책방향 및 정보의 전달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정보제공의 혜택을 받는 일부 단체들이 매년 선정되는 불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책방향의 명확성 및 균형 잡힌 전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참여자5는 '문화예술교육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음
- 일례로 충남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주관단체인 예총의 운영방향이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예술가적 입장에 비중을 둬므로써 「충남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선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었음
- 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 전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이해를 위한 사전 워크숍과 같은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원활한 협력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었음

③ 충남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

-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로 참여자4가 언급한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과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이나 지원체계의 원활한 구축',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이었음
-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과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이나 지원체계의 원활한 구축'은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정보 전달의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이 균형 잡히게 전달될 수 있고, 지역 간의 균형 및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연수의 기회 제공'과 '정책 교육', '예술분야 연수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참여자5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로 언급한 내용은 역시

-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과 ‘문화예술교육 구성원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 제공’,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이었음
- 우선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의 역할로는 지역 내에 중복 혹은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차별화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기관에서 정리, 구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역시 재단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구성원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는 역할 역시 주문하고 있는데, 예술강사들의 장르간 통섭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상호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 지역 내 예술강사 대상의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④ 기관·단체의 문제점

- 참여자4가 언급한 ‘기관·단체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운영 예산 부족을 들었으며, 이러한 열악함이 강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었음
- 일례로 1년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다음 년도 강사비 인상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일방적으로 과목을 폐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참여자들이 직접 강사에게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져 난감했던 경우를 언급하고 있었음
- 참여자5 역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매년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형태의 사업운영을 요청하고 있었음

3) 종합분석

(1) 기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방향

- 이번 심층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천안문화예술의전당」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다올책사랑방」 등 민간시설의 활동 여건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음
- 천안시의 지원을 받는 「천안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었고,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반면 시·군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올책사랑방」의 경우, 시설운영의 유지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남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지원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공모사업 지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참여자4(예술강사)의 언급에서와 같이 '지원사업의 정책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홍보가 미흡할 경우 매년 동일한 단체가 선정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참여자2(다올책사랑방)가 언급했던, '프로그램 운영비 중 강사료 지원'의 경우는 지역 내 예술가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2) 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방향

- 문화예술교육단체 역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단체 운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외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 개발 위주의 공모사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단체의 경우, 충남 도내에서의 활동 외에 타 시도에서의 활동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사업 역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IP사업 등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

였음

- 이는 자칫 도내 활동 단체 및 종사자들의 타 지역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기반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예술활동 지원, 문화산업 영역의 발전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국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공모사업'이 민간 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도내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사업이라는 성격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음
- 따라서 '공모사업 지원'에 매년 같은 단체들이 반복 지원하는 현상은 사업 홍보의 미흡함에 원인을 두기 보다는 '공모사업 지원'에 따른 베네핏 제공이나 또 다른 활동 영역 창출에 도움을 제공하는 유인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종사자 운영 현황 및 지원 방향

-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역시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각각에서 활동상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예술강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선 학교교사와의 협조 및 교육효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강사들의 희생으로 채워야 하는 구조상의 열악함을 제기하고 있었음
- 따라서 종사자들 역시 비교적 활동 여건이 양호한 대전, 세종지역으로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이탈이 다시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여건의 미흡함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었음
-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는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상의 지원'과 '충남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방향성,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정보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그리고 '종사자들 상호간의 소통 체계 마련'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제4장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기초문화재단과의 논의사항

- 본 연구과제의 1차적인 목적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기초자원 현황 조사 및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설문조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이었음

1) 생활권별 기초센터 지정 (1년 차)

(1) 기초센터 지정

- 기초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광역센터와 연계할 6개 생활권별 1~2곳씩(총 7~9곳)의 기초센터 지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충남 도내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인적자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시설의 경우, 종합계획 내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중심의 교육 활성화」 및 「시군별 작은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충 지원」 과제가 있어 기존 공간의 구조변경 및 유휴공간 확보를 추진한다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봄
- 하지만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종사자의 경우, 기존 인적자원 외 신규 자원을 설립, 육성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이들 자원의 육성을 전제로 하되, 최초 실행은 15개 시·군을 6개 생활권으로 묶어, 상대적으로 단체 및 종사자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태안군, 예산군, 청양/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등의 지역을 각각 서산/당진시, 홍성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의 인적지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생활권 내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단체 및 종사자들이 지원사업 공모 시, 동일 생활권 내 2~3개 시·군을 망라하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발 과정에서 2~3개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안배하는 방안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충남도를 생활 여건에 따라 구분한 6개 생활권(본문 p.참조)을 제안하며, 지역 내 특징 및 문화예술교육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기초문화재단, 문화

원, 생활문화센터 등의 기관·시설 중에서 생활권별로 기초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① 북부내륙권 (천안/아산) - 2곳 혹은 3곳 지정

- 도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66만 명)와 아산시(32만 명)는 각각의 시별로 1곳씩의 기초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40만 명)와 동남구(26만 명)의 지역별 인구분포 및 여건²³⁾이 달라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역별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별로 기초센터를 지정할 필요도 있음
- 현재 기초센터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화재단은 서북구에 위치해 있고, 천안예술의전당은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로 간의 역할 구분 및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단, 천안문화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천안예술의전당 내 미술관팀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물론 정책기획팀 내에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차장급 담당자가 1명 배치되어 있음)
- 정책기획팀 내에 '문화예술분야 관련 DB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배치되어 있어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취합 역시 가능해 보임
- 아산시 역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제조업 중심 도시로 인구분포 및 지역 내 여건은 천안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기초센터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아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팀 내에 「배방 생활문화센터」 담당자와 '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축제 기획팀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아산온궁오케스트라)' 담당자가 1명 배치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가 1명이어서, 유아 문화예술교육 및 초·중·고 문화행사, 지역 거점 대학 동아리 지원, 생애전환세대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의 실행과제와 기초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재단의 1년 문화예술교육사업비가 70,000천원으로 적었던 점 역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23) 서북구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제조업 중심 지역인 반면, 동남구는 구(舊) 천안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원도심으로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구(區)별 인구분포의 양상 역시 다름

② 북부해안권 (서산/당진/태안) - 1곳 혹은 2곳 지정

-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해안권(40만명) - 서산시(17.5만명), 당진시(16.5만명), 태안군(6만명) - 은 생활권 내 1곳의 기초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초센터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당진문화재단」은 별도의 예술교육부(부장 외 4명)가 운영되며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있고, 2020년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성인 대상의 '시민 문예아카데미', 초·중 대상의 '예술 영재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초센터가 담당할 지원사업 운영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부 록

■ 참고자료 1

설문지 관리번호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체계 연구 설문지

(진흥원 예술강사, 재단 공모사업 참여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사 용)

<http://naver.me/FJnRbSC5>

안녕하세요?

연구수행기관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남 도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사회 예술강사와 재단 공모사업 참여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를 위한 의제 도출을 위해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설문지 주소 :

☎ 문의사항 : 정은재 연구원 (010-9272-6821)

2021년 11월
조사연구기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설문지에서는 매개인력 양성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개인력'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강사, 기획자, 행정인력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양성교육'은 신규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진입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역량강화교육'은 기존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설문지

<응답자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충남 ()시(군) ② 타 지역 ()시(도)

- 귀하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시는 지역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시(군)까지만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활동시간이 많은 순서로 기재해 주
십시오.)
① 충남 : 1순위(), 2순위()
② 타 지역 : 1순위(), 2순위() ③ 없음

- 귀하가 참여하시는 활동영역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복수기재 가능)
① 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② 진흥원 사회 예술강사
③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 참여(과거 참여 포함)
④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등)
⑤ 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공연장, 박물관, 평생교육시설 등)
⑥ 없음

- 귀하가 참여하시는 주된 업무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강사 ② 기획자 ③ 행정인력 ④ 단체운영

- 귀하의 활동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3년 ④ 3년~5년 ⑤ 5년~10년
⑥ 10년 이상

○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귀하의 최종 학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석사) ④ 대학원 졸업(박사)

○ 귀하의 최종학력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 (세부전공:) ② 기타 (세부전공:)

<매개인력 역량강화 활동 현황>

1. 귀하는 2021년 한 해동안 매개인력 역량강화교육(연수)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4번 문항으로 이동)

2. (매개인력 역량강화교육(연수)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형태를 활용하셨습니까?

(한 군데 이상 참여하셨다면 참여 형태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 ① 진흥원 연수(아르떼아카데미) ②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③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연수교육(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④ 충남문화재단의 연수교육(공모사업 운영단체 역량강화)
⑤ 단체의 자체 워크숍(연수) ⑥ 기타 ()

3. 참여하신 역량강화교육은 귀하의 매개인력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습니까?

(한 군데 이상을 기재하셨다면 가장 도움이 된 연수를 적어주시고, 도움의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연수 :)

- ① 매우 도움이 됐다 ② 약간 도움이 됐다 ③ 보통 정도
④ 별로 도움이 안됐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됐다

<매개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_교육내용>

4. 귀하는 본인의 매개인력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보통 정도 ④ 약간 낮음
 ⑤ 매우 낮음
5. 귀하가 현재의 매개인력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경로는 무엇
 입니까? (최대 두 개까지만 표시해 주세요)
 ① 진흥원의 연수교육(학교/사회) ②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③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연수교육 ④ 충남문화재단의 연수교육
 ⑤ 단체의 자체 워크숍(연수) ⑥ 대학(원)의 전공교육(예술)
 ⑦ 반복된 강사활동 경력의 축적 ⑧ 동료 강사의 피드백/협의
 ⑨ 자기주도적 학습 ⑩ 기타()
6. (교육강사만 답변) 자신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역량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
 로 강화하고 싶은 역량은 무엇입니까? (두 개만 표시해 주세요)
 ①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② 분야(장르)별 교육 개념의 이해
 ③ 보다 대상이 세분화되고 심화된 전공별 교수학습방법
 ④ 프로그램 기획·개발 ⑤ 통합예술교육 영역 ⑥ 프로그램의 진단·평가
 ⑦ 교재 교구개발 및 활용영역 ⑧ 문화예술교육 수업 실행 및 전개 능력
 ⑨ 커뮤니케이션 기법 관련 영역 ⑩ 상담교육 관련 영역
 ⑪ 특수교육 관련 영역 ⑫ 전공자의 실기교육 영역
 ⑬ 생애주기별 대상의 이해 및 전문성 ⑭ 지역의 특성 및 문화자원 이해
 ⑮ 사업 운영 및 행정 능력 ⑯ 기타 ()
- ※ 7~10번 문항은 설문참여자가 희망하시는 연수 프로그램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진흥원 연수교육(아르떼아카데미)의 교과목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유
 록게 희망하시는 교과목을 체크해 주십시오. (하나 이상을 원하시는 경우, 최대
 두 개까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7. (교육강사만 답변) 아래 내용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온라인(동영상) 강의 콘텐츠 제작하기(기초/심화)
 ② 학교/사회 신규 예술강사 멘토십 연수(선배 예술강사의 수업 참여)

- ③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예술적 교사로 거듭나기(예: 실용주의 미학)
- ④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예: 심미적 교수법)
- ⑤ 혁신적 교수법을 위한 예술강사 커뮤니티 워크숍(예: TAT LAB)
- ⑥ 교육대상의 심층 이해(예: 장애와 인권, 청소년과 부모, 아동의 권리 등)
- ⑦ 대상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예: 아동, 노인 분야, 장애 분야 등)

8. (기획자만 답변) 아래 내용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적 기업 만들어가기
- ② 관객의 니즈를 반영한 공연기획 및 스토리텔링
- ③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예술콘텐츠 제작(유튜브, 드론, VR, 홀로그램 등)
- ④ 예술인을 위한 법률 정보(저작권, 계약서, 근로기준법, 성희롱 등)
- ⑤ 문화예술 지원사업 활용 방안(서류작성, PPT작성, 프레젠테이션 등)
- ⑥ 세무 기초와 지원사업 정산실무
- ⑦ 문화예술 시장분석과 예술경영적 접근(예술상품의 이해, 예술가의 경쟁력 등)
- ⑧ 예술단체의 아카이빙(예술기록, 예술단체의 기록관리)

9. (행정인력만 답변) 아래 내용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 ①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② 문화예술교육과 행정지원(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의 가치)
- ③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와 말하기
- ④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뉴미디어 사용 전략(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⑤ 현장 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정인력의 소통 자세
- ⑥ 레지던시 이해 및 행정인력의 역할과 지원

10. 다음은 매개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과목입니다. 아래 내용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동향 이해(기술융합 어디까지)
- ② Z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용 방법
- ③ 문화예술교육 현장 및 정책의 이해(사회 환경의 변화, 법·제도의 이해 등)
- ④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공간이 지닌 의미와 역할, 운영사례
- ⑤ 예술과 지역 공동체를 매개하는 예술가(예술의 사회적 역할)

- 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창작과 교육(인공지능과 예술창작, 데이터 분석)
- ⑦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소양 및 이론적 기초
- ⑧ 교사-예술강사 협력수업의 방법 탐색
- ⑨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획 및 경영 방법 탐색
- ⑩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적용한 문화예술교육 기획

11. 그 외에 충남 매개인력 역량강화교육 내에 개설을 희망하시는 교과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매개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_타 지역 활동의향>

12. 귀하는 현재 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① 예 (→ 13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이동)

13. 귀하는 어느 곳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십니까?

- ① 충남 도내
- ② 타 지역
- ③ 선호지역 무관

14. 귀하는 타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오

15. 타 지역 활동 중이시거나, 의향 및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만약 귀하에게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귀하는 충남에서의 활동에 집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오

설문지 관리번호

	-	
--	---	--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체계 연구 설문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 용)

<http://naver.me/5tPIJpzt>

안녕하세요?

연구수행기관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남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 연구를 위한 의제 도출을 위해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설문지 주소 :

☎ 문의사항 : 정은재 연구원 (010-9272-6821)

2021년 11월
조사연구기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설문지에서는 매개인력 양성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개인력'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강사, 기획자, 행정인력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양성교육'은 신규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진입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역량강화교육'은 기존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설문지

<응답자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 귀하는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 귀하의 문화예술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부전공:)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숙사 및 자취, 하숙을 하실 경우, 해당 소재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① 충남 ()시(군) ② 기타 지역 ()시(도)

- 귀하의 등교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에서 등교 ② 기숙사(자취,하숙)에서 등교

- (기숙사(자취,하숙)을 하신다면) 본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충남 ()시(군) ② 기타 지역 ()시(도)

<매개인력 역량강화 활동 현황>

- 1. 귀하의 졸업 후 진로는 무엇입니까?
① 전공 관련 예술 창작 활동 ② 예술 전공을 활용한 문화산업 분야 취업
③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 ④ 전공과 무관한 분야 취업
⑤ 아직 잘 모르겠음 ⑥ 기타 ()

- 2. 귀하는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번 문항으로 이동)

13. 충남문화재단 매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참고자료 2

충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활성화 및
양성체계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 녹취록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

① FGI인터뷰

연구원 1 : 연구원(질문자)

참여자 1 : 이○○

참여자 2 : 임○○

참여자 3 : 주○○

연구원 1 :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선주 학생부터 설문 주셨던 항목들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주 학생은 현재 3학년이구요. 뮤지컬학과 3학년이시고 현재 원 거주지가 양주이시고 예 그런 상황이구요.

참여자 1 : 네.

연구원 1 : 그 졸업하신 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강사 활동을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강사 활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게 처음부터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 혹은 어떤 상황에서 문화 예술 교육 강사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여자 1 : 일단은 문화 예술 강사에 대해서 2학년 때 처음 알게 됐는데 2학년 때 선배님들이 이제 <문예사>라는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나중에 졸업에서도 이러한 우리 예술 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 예술 전공 수업 중에 <통합 예술 교육> 라는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다 들어보면서 “이런 게 예술 강사 관련된 수업이구나.” 듣고서 제가 일단 뮤지컬 전공으로 오기는 했지만, 강사의 꿈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생기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짜고 내가 수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란 생각을 들게 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갑자기 <문예사> 수업을 3개를 듣고 이게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연구원 1 : <문예사> 수업 말고 통합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참여자 1 : 네. 있습니다.

연구원 1 : 담당해주시는 교수님은 누구실까요?

참여자 1 : ‘김미주 교수님’ 이라고 뮤지컬 학과에 계십니다.

연구원 1 : 네. 뮤지컬 학과의 <통합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다는 얘기는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참여자 1 : 네.

연구원 1 : 좋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신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강사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문예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지금 5과목 진행 되는 상황이고 선주 학생은 그중에서 4과목 들으셨나요? 3과목 들으셨나요?

참여자 1 : 지금 3과목을 들었습니다.

연구원 1 :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까요?

참여자 1 : 일단, 제가 먼저 처음에 수업을 들은 것이 학과에 있는 수업을 처음으로 들었다 했는데, 그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더 구체적이고 이제 <교육계론> 이런 거 들으면서 진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이제 교수님 수업 지금 듣는 <연극 교수 학습 방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뭐 <플레이백 시어터> 토론 연극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더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진짜 구체적이고 원래 이제 내가 교육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방법을 얻어 갖고 또 제가 3가지는 <개혁개론>이랑 그리고 <현장실습의 이해> 그걸 들으면서 이제 수업 지도안이라는 양식에다가 하는데 그런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자라고 적는다 이제 교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강사가 뭐 아이들이 쓰지 말고 학습자를 쓰고 차시는 어떻게 하고 학습 목표까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 알다 보니까,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 이제 온라인이어서 정말 아쉬웠지만 또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원 1 : 관련된 지식과 구체적인 어떤 이제 방법들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죠.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참여자 1 : 네.

연구원 1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3과목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예은 학생한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5과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1 : 네.

연구원 1 : 과목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상황일까요?

참여자 1 : 네. 과목이 더 많은 것 보다는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면서 직접 실습도 하고 보고 직접 프로그램 짜고 직접 앞에서 발표해보고 그런 시간 있으면 5과목 하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연구원 1 : 실기 혹은 실습 혹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정확한 내용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는 하나의 질문이 만약에 충남도 네 그러니까 문화 충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문화재단에서 양성체계를 구축할 생각인데 재단에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을 받으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이 질문은 사실 재학 중인 상황에서 졸업하신 상황 말고 재학 중인 상황에서도 <문예사> 과목 외에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기회가 진행 제공된다면 수업을 들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한 질문에 내용인데 그런 상황이어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실까요?

참여자 1 : 네. 저는 이제 한 학년이 남은 상태니까 갑자기 교과목에 만약에 생긴다면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연구원 1 : 그랬을 때 좀 더 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참여자 1 : 일단 저는 이제 실습 위주에 활동적인 그런 교육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또 만나서 해보는 프로그램도 짜보고 직접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요.

연구원 1 : 아까 이제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참여자 1 : 네.

연구원 1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본인의 매개 역량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프로그램 기획 개발 그리고 또 문화예술교육 수업 실행 및 전개 능력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 교과 과목을 선택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자 1 : 제가 일단 프로그램이 짜는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이번에 과제로 등 뭐로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진짜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너무 짜하고는

싶는데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되게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더 개선이 되면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원 1 : 수업 실행 및 전개 능력은 어떤 걸까요?

참여자 1 : 일단 아직 실습으로 이제 직접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일단 프로그램 짜는 거 해보고 개론 이런 건 들어봤는데 직접 나가서 해보지는 못했던 이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프로그램 전문 능력과 가서 직접 해보는 그런 실습하는 그런 게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원 1 :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문예사> 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계신데 만약에 <문예사> 수업 교육과정에 5과목 지금 현재 3과목을 들으셨다고 했죠? 3과목을 들으셨지만 어쨌든 이제 심화 과정이 만약에 제공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과목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 전공이 뭘니까 이 연극은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이제 현장에서 실습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이 되면 좋겠고 또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참여자 1 : 네. 좋습니다.

연구원 1 :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예술 교육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참여자 1 : 네. 이제 정확한 그런 뭐가 필요할건 알겠는데 명칭이 딱 생각나는게 없어서 지금까지 쪽 말했듯이 실습이 가장 하고 싶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 1 :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어느 곳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선호 주역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인에 거주 중인 양주도 상관이 없고 또 충남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참여자 1 : 네.